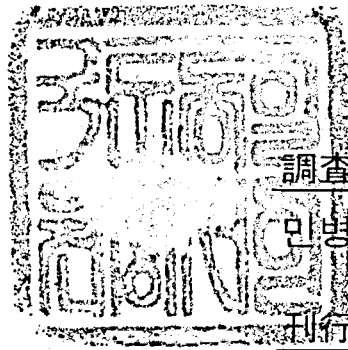


1. 이 冊子는 國土統一院의 統一問題 意見調查 計劃에 의거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2.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連된 研究 및 政策樹立의 參考資料로 제공되는 것임.

統一問題에 관한 國民意見調查



調查 및 分析責任

민병천(東國大 教授)

刊行責任

홍흥주(統一政策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第二政策官室)

目 次

第 1 章 調查方法	3
第 1 節 調查內容과 對象	5
第 2 節 調查方法	17
第 2 章 調查結果 分析	19
第 1 節 統一全般에 관한 意見	21
1. 統一當爲理由	21
2. 統一時期	26
3. 統一國家體制	31
4. 統一方法	36
第 2 節 南北對話觀	42
1. 對南提議受容	42
2. 對話重點	46
3. 北韓의 當局對話 忌避理由	51
4. 南北頂上會談	56
第 3 節 統一論議에 대한 意見	62
1. 密入北 行爲	62
2. 密入北 處理	67
3. 第 6 共和國의 統一努力	72
4. 統一論議	77
第 4 節 北韓觀	82
1. 北韓知識源	82

2.	北韓住民生活	87
3.	北韓政治體制 評價	92
4.	北韓社會觀	97
5.	北韓同胞 對面時 態度	101
第5節 安保觀		107
1.	戰爭可能性	107
2.	安保威脅要素	112
3.	美軍撤收時期	117
第6節 北方政策斗 統一課題		123
1.	北方政策斗 平和 與 統一	123
2.	「平祝」參加 不許措置	128
3.	南北當局의 統一課題	132
4.	國內 統一障礙	137
5.	北韓의 統一障礙	142
第3章 問題點 與 要約		149

第1章 調 査 方 法

第 1 節 調査內容과 對象

1. 調査內容

이 조사는 주로 통일과 대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을 가지고 실시되었으나 통일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북한 및 안보에 관한 의견도 포함하였다. 그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통일전반에 관한 의견 | : 4개문항 |
| ② 남북대화관 | : 4개문항 |
| ③ 통일논의에 대한 의견 | : 4개문항 |
| ④ 북한관 | : 5개문항 |
| ⑤ 안보관 | : 3개문항 |
| ⑥ 북방정책과 통일과제 | : 5개문항 |
| ⑦ 배경사항 | : 6개문항 |
| ⑧ 기 타 | : 1개문항 |
| 계 | 32개문항 |

이상과 같은 내용구성을 가진 조사의 구체적 성분은 다음 <표 0-1>과 같다.

안 내 말 씀

이 설문은 분단 44년을 맞아 그간의 통일태세를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발표되지 않습니다. (5)번부터 해당란 하나에만 (○)표를 번호앞에 해주시고 기타로 생각되는 것은 의견을 써 주십시오.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 민병천 올림 —

(1-2 권)	(3-4)매수	(5) 성 별	(6) 연 령	(7) 학 력
		(1) 남	(1) 20 대	(1) 국졸 및 이하
		(2) 여	(2) 30 대	(2) 중졸
			(3) 40 대	(3) 고졸
			(4) 50 대이상	(4) 대재 및 이상

(8) 생활수준	(9) 직 업		(10) 지 역
(1) 상	(1) 전문직·자유직	(6) 주부	(1) 서울
(2) 중상	(2) 사무·관리직	(7) 초중교원, 공무원	(2) 직할시
(3) 중	(3) 학생	(8) 기능직·노동자	(3) 기타시
(4) 중하	(4) 농림어업	(9) 제조업	(4) 읍·면
(5) 하	(5) 판매·서비스업	(10) 기타(무직포함)	

11.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1)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 (2) 같은민족
- (3) 경제발전
- (4) 전쟁위험 방지
- (5) 국제지위 향상

12. 지금의 내외정세로 보아 대략 언제쯤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 (1) 10년 이내
- (2) 20년 이내
- (3) 20년 이후
- (4) 통일은 거의 불가능

13.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는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 자유민주주의체제
- (2)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 (3) 혼합중간체제
- (4) 어떤체제도 무방

14. 통일을 이룩하는 여러 방법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1) 협상에 의한 일괄해결 방법
- (2) 군사적 방법
- (3) 상대방 전복혁명 방법
- (4) 교류협력의 점진적 방법

15. 북한의 각종 대남제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가급적 받아들여야
- (2) 북한의 의도를 판단, 선별적으로 대응
- (3) 기본노선에 변화가 없는 한 무시해야

16. 현재 추진중인 남북대화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화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고위당국자 회담
- (2) 적십자회담
- (3) 경제회담
- (4) 국회회담
- (5) 체육회담

17. 북한이 당국간의 대화를 기피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 (1) 한국정부를 국민과 고립위해
- (2) 재야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 (3) 교류와 개방의 지연의도
- (4) 평화통일을 원치않기 때문

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안해결위해 조속 개최해야
- (2) 명분있으나 실현어렵다
- (3) 하는 편이 더 좋다
- (4)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19. 당국에 알리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어떻게 보니까?

- (1) 통일과 대화에 도움 안된다
- (2) 통일과 대화에 도움된다
- (3) 동기 순수해도 대남공작에 이용된다
- (4) 통일에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20. 정부동의 없이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까?

- (1) 위법행위임으로 처벌 마땅
- (2) 위법했어도 반국가행위 안했으면 관용
- (3)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안해야

21. 제 6 공화국 출범이후 정부의 통일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과거보다 적극적
- (2) 과거와 별차이 없다
- (3) 과거보다 소극적
- (4) 잘 모르겠다

22. 제 6 공화국 출범이후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는 자유로운 통일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통일논의를 완전 개방해야
 - (2) 북한과 같이 제한해야
 - (3)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논의만 제한해야
23. 북한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로들입니다. 이중 주로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신문 및 방송
 - (2) 연구자료 및 책자
 - (3) 각종 교육을 통해
 - (4) 각종 홍보물
 - (5) 친지, 친구로부터
24. 북한의 일반주민 생활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추정하십니까?
- (1) 남한보다 높다
 - (2) 남한과 비슷하다
 - (3) 남한보다 약간 낮다
 - (4) 남한보다 훨씬 낮다
25.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쁜 체제이다
 - (2) 좋은점 있으나 나쁜점 더 많다
 - (3) 나쁜점 있으나 좋은점 더 많다
 - (4) 좋은 체제이다
26. 북한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1) 인권과 자유없는 못살 곳이다
 - (2) 일부 장점 있으나 거기서 안살겠다
 - (3) 의식주 취업이 보장되니 살만한 곳이다
 - (4) 거기서 살고 싶다
27. 지금 당장 북한동포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 (1)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
 - (2) 담담히 대하겠다

- (3) 경계심을 갖겠다 (4) 대화를 피하겠다
 (5) 그때 가보아야 안다
28.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약간 있다
 (3) 가능성이 희박하다 (4) 전혀 없다
 (5) 잘 모르겠다
29.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중에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좌경이념의 확산과 사상적 혼란 (2)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불안
 (3) 민생치안 약화와 사회혼란 (4) 노사분규와 경제성장 둔화
 (5) 잘 모르겠다
30. 주한미군의 철수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북한의 무력통일 포기시 (2) 자체 방위력이 충분할 때
 (3) 지금부터 점진적 철수 (4) 당장 철수
3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산권외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1) 크게 도움 (2) 다소 도움
 (3) 별로 도움 안됨 (4) 오히려 해로움
32. 북한이 개최한 「평양축전」에 우리 청년학생들의 참가를 불허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한 일 (2) 부득이한 조치
 (3) 악용우려 있어도 허가했어야 (4) 잘못된 일
33. 평화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해 남북당국이 어느 조치부터 취해야 하겠

읍니까?

- (1) 상호 인정과 불간섭
- (2) 교류와 협력
- (3) 군대감축과 훈련감소
- (4)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교차 승인
- (5) 기타 ()

34. 아래 열거한 내용들은 흔히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통일의 장애요소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은 어느 것이입니까?

- (1) 환상적 통일지상주의
- (2) 좌경세력의 친북한 활동
- (3) 극단적 반공주의
- (4) 기타 ()

35. 통일의 장애요인이 북한측에 있다면,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1) 대남 적화통일 노선
- (2) 폐쇄사회
- (3) 김일성부자 세습체제
- (4) 경제·사회적 후진성
- (5) 무모한 군사력 증강

36. 이상의 의견이외에 통일에 도움이 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調查地域과 對象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의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 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대도시
- ② 각도 도청소재지(제주 제외) 또는 중소도시
- ③ 각도내의 읍·면등 농어촌지역

그리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① 20세이상의 남녀
- ② 대상인원은 전국인구통계에 의해서 각 시·도(및 시부와 군부)별로 인구비례에 의한 비율할당에 따라 배정하였다.
- ③ 개개인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해당 지역에 파견된 조사원의 무작위 추출선정으로 이루어졌다.

할당된 시·도(시 및 군)별 인원과 조사된 인원은 다음 <표 0-2>와 같다.

<표 0-2>

총할당 및 조사수

도	시·군별	인 구 수	% (인구비)	할당수	조사수	비 고
서울특별시		9,639,110	23.8	480	497	
부산직할시		3,514,798	8.7	180	180	
대구직할시		2,029,853	5.0	100	100	
인천직할시		1,386,911	3.4	60	60	
경 기 도	시 부	2,213,614	5.5	120	225	
	군 부	2,580,521	6.4	120		

도	시·군부	인 구 수	% (인구비)	할당수	조 사 수	비 고
강 원 도	시 부	722, 239	1. 8	40	100	
	군 부	1, 002, 570	2. 5	60		
충 청 북 도	시 부	565, 861	1. 4	20	60	
	군 부	825, 143	2. 0	40		
충 청 남 도	시 부	1, 036, 344	2. 6	60	160	
	군 부	1, 964, 835	4. 9	100		
전 라 북 도	시 부	945, 161	2. 3	40	100	
	군 부	1, 256, 917	3. 1	60		
전 라 남 도	시 부	1, 494, 769	3. 7	80	218	광주직할시 제주도포함
	군 부	2, 253, 659	5. 6	120		
경 상 북 도	시 부	859, 352	2. 1	40	140	
	군 부	2, 151, 593	5. 3	100		
경 상 남 도	시 부	1, 749, 746	4. 3	80	160	
	군 부	1, 766, 914	4. 4	80		
제 주 도	시 부	285, 222	0. 7	10	(전라남도예 포함)	
	군 부	203, 354	0. 5	10		
계		40, 448, 486	100	2, 000	2, 000	

※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제 34 호 (1987) , pp.40-41
에 의거 작성

<표 0-3>

성 별 조 사 표

성 별	조 사 수	%
남	1,179	58.95
여	818	40.90
미 상	3	0.15
계	2,000	100

<표 0-4>

연 령 별 조 사 표

연 령	조 사 수	%
20 대	675	33.75
30 대	575	28.75
40 대	429	21.45
50 대 이 상	319	15.95
미 상	2	0.10
계	2,000	100

<표 0-5>

학 력 별 조 사 표

학 력	조 사 수	%
국 졸 이 하	120	6.00
중 졸	340	17.00
고 졸	945	47.25
대 재 이 상	593	29.65
미 상	2	0.10
계	2,000	100

<표 0-6>

생 활 수 준 별 조 사 표

생 활 수 준	조 사 수	%
상	15	0.75
중 상	234	11.70
중	1,167	58.35
중 하	415	20.75
하	166	8.30
미 상	3	0.15
계	2,000	100

<표 0-7>

직업별조사표

직업	조사수	%
전문직·자유직	141	7.05
사무·관리직	214	10.70
학생	238	11.90
농어업	147	7.35
판매서비스	291	14.55
주부	454	22.70
초중교원·공무원	105	5.25
기능직·노동자	229	11.45
제조업	38	1.90
기타(무직포함)	84	4.20
미상	59	2.95

<표 0-8>

지역별조사표

지역	조사수	%
서울특별시	497	24.85
직할시(광주포함)	407	20.35
기타시	517	25.85
읍·면	576	28.80
기타	3	0.15
계	2,000	100

第2節 調査方法

1. 調査進行方法

조사를 실제로 진행할 때의 실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조사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설문지를 피조사자에게 제시하면서 면접기
입방법을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단위에서는 부분적으로 배포·기
입하게 하였다. 배포된 것 가운데 미회수분은 개별적인 면접방식으로
보충하였으므로 회수율이 100%에 이르게 된다.

② 조사원은 대상지역별로 할당받은 인원만큼 조사를 하되 대상자 개인
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임의(무작위)로 결정하여 조
사하였다.

2. 調査期間

조사를 위한 준비에서 실시 및 처리(인쇄제외)까지의 기간은 1989
년 6월부터 10월까지(4개월 반)이고 그 구체적인 진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를 위한 설계는 1989년 5월에 이루어졌다.

② 조사준비는 6월에서 7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③ 실제로 면접과 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이
다.

④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확인작업과 전산처리 및 제표작업을 진
행하였다.

⑤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3. 調査員 및 訓練

① 조사원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및 학부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② 조사원에 대한 훈련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회때에는 주로 취지와 조사성격 및 내용에 치중하였고, 2회때에는 조사실시에 따르는 유의사항등 행정적 절차에 치중하였다.

4. 處理 및 分析

① 수집된 조사표는 확인후 분류하여 편집하였다.

② 집계는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집계된 것은 표로 제표화하는 작업과정을 거쳤다.

④ 제표화된 것을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는 바 분석은 특징을 찾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며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찾는 데 역점을 두었다.

⑤ 분석에서 1986년 3월에 조사보고된 동일한 내용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第2章 調查結果分析

第 1 節 統一全般에 관한 意見

1. 統一의 當爲理由

은 겨레가 統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統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統一이 되어야 할 이유를 묻은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1〉 통 일 의 당 위 성 (전체)

비율 내용	전 체		86년	3월
	명	%	명	%
이산고통 해소	205	10.25	945	9.45
동일민족이니까	1,237	61.85	3,539	35.39
전쟁위험 방지	223	11.15	696	6.96
국제지위 향상	104	5.20		
경제발전	224	11.20	4,473	44.73
무응답	7	0.35	21	0.21
북한주민해방			326	3.26
계	2,000	100	10,000	100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대다수가 人道와 민족적인 이유를 두고 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61.85%나 된다. 이것은 다른 조사의 결과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경제발전이 아니고 민족번영이라는 항목으로 물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족적 요인이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전쟁위험방지를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많이 줄었다.

이것은 6공화국 이후에 안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분단상태하에서의 경제발전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1-1-2>

통 일 의 당 위 성

(성별)

비율 내용	남		여		무응답	
	명	%	명	%	명	%
이산고통 해소	100	8.5	105	12.8		
동일민족이니까	766	65.0	469	57.3	2	66.7
전쟁위험방지	127	10.2	95	12.7	1	33.3
국제지위 향상	61	10.8	43	11.6		
경제발전	120	5.2	104	5.3		
무응답	5	0.4	2	0.2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1-1-3 >

통 일 의 당 위 성

(연령별)

비율 내용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이산고통해소	42	6.2	50	8.7	49	11.4	64	20.1		
동일민족이니까	450	66.7	362	63.0	258	60.1	165	51.7	2	100
전쟁위험방지	61	12.1	57	10.6	54	11.9	51	9.4		
국제지위향상	37	9.0	43	9.9	16	12.6	8	16.0		
경제발전	82	5.5	61	7.5	51	3.7	30	2.5		
무 응 답	3	0.4	2	0.3	1	0.2	1	0.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1-1-4 >

통 일 의 당 위 성

(학력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이산고통해소	34	28.3	45	13.2	95	10.1	31	5.2		
동일민족이니까	53	44.2	179	52.6	575	60.8	429	72.3	1	50.0
전쟁위험방지	18	15.0	58	17.1	99	10.5	48	8.1		
국제지위 향상	4	3.3	14	4.1	54	5.7	32	5.4		
경제발전	11	9.2	44	12.9	119	12.6	49	8.3	1	50.0
무 응 답					3	0.3	4	0.7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1-1-5>

통 일 의 당 위 성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이산고통해소	1	6.7	27	11.5	106	9.1	52	12.5	18	10.8	1	33.3
동일민족이니까	8	53.3	143	61.1	727	62.3	254	61.2	103	62.0	2	66.7
전쟁위협방지	4	26.7	24	10.3	131	11.2	43	10.4	21	12.7		
국제지위 향상			14	6.0	62	5.3	19	4.6	9	5.4		
경제발전	2	13.3	24	10.3	137	11.7	46	11.1	15	9.0		
무 응 답			2	0.9	4	0.3	1	0.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1-1-6>

통 일 의 당 위 성

(직업별)

비율 내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업	관 매	주 부	초 중	기능직	기 타	무응답	
	자유직 명(%)	관리직 명(%)	명(%)	명(%)	서비스 명(%)	명(%)	교원, 공무원 명(%)	노동자 명(%)	제조업 (무직 포함) 명(%)	명(%)	명(%)
이산고통해소	11 (7.8)	13 (6.1)	14 (5.9)	25 (17.0)	30 (10.3)	74 (16.3)	6 (5.7)	16 (7.0)	3 (7.9)	7 (8.3)	6 (10.2)
동일민족이니까	93 (66.0)	137 (64.0)	166 (69.7)	88 (59.9)	186 (63.9)	240 (52.9)	71 (67.6)	145 (63.3)	24 (63.2)	50 (59.5)	37 (62.7)
전쟁위협방지	15 (10.6)	25 (11.7)	22 (9.2)	18 (12.2)	23 (7.9)	57 (12.6)	11 (10.5)	26 (11.4)	2 (5.3)	17 (20.2)	7 (11.9)
국제지위 향상	8 (5.7)	9 (4.2)	7 (2.9)	4 (2.7)	13 (4.5)	29 (6.4)	10 (9.5)	10 (4.4)	4 (10.5)	5 (6.0)	5 (8.5)
경제발전	13 (9.2)	29 (13.6)	27 (11.3)	12 (8.2)	38 (13.1)	53 (11.7)	7 (6.7)	32 (14.0)	5 (13.2)	5 (6.0)	3 (5.1)
무 응 답	1 (0.7)	1 (0.5)	2 (0.8)		1 (0.3)	1 (0.2)					1 (1.7)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1-1-7>

통 일 의 당 위 성

(지역별)

비율 내용	서 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이산고통해소	46	9.3	51	12.5	41	7.9	67	11.6		
동일민족이니까	324	65.2	261	64.1	298	57.6	351	60.9	3	100
전쟁위험방지	50	10.1	45	11.1	77	14.9	51	8.9		
국제지위향상	23	4.6	22	5.4	27	5.2	32	5.6		
경제발전	52	10.5	27	6.6	71	13.7	74	12.8		
무응답	2	0.4	1	0.2	3	0.6	1	0.2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들을 추려본다.

① 남자(65%)는 여자(57.3%)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율이 높은 대신 여자는 남자보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율이 약간 높다. 여성이 갖는 가정지향성 때문일 것이다.

② 고령층에서 이산고통의 해소를 통일이유로 내세우는 율이 높아 20대의 6.2%에 대해 50대이상은 20.1%나 된다. 고령층의 인도주의적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보겠고, 6.25의 경험과 이산 제1세대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대신 동일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노령층일수록 줄어 20대의 66.7%에 비해 50대는 51.7%에 불과하다.

③ 학력이 낮을수록 이산고통의 해소(대졸 5.2%에 대해 국졸은 28.3%)에 대한 반응율이 높고 전쟁위험방지를 더 내세우고 있다.(대졸자 8.1%에 비해 국졸은 15%) 그대신 고학력일수록 동일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높아 국졸의 44.2%에 대해 대졸자는 72.3%에 이른다.

④ 상류층은 경제발전과 전쟁방지에 관심이 두드러진다.

⑤ 직업별 차는 별로 없고 대도시일수록 동일민족이니까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높은 편이다.

2. 統一時期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지금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시기를 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에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함께 포함한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2-1>

통 일 시 기

(전체)

비율 내용	전 체		86년 3월	
	명	%	명	%
10년 이내	253	12.65	732	7.32
20년 이내	443	22.15	1,275	12.75
20년 이후	518	25.90	783	7.83
통일 불가능	773	38.65	2,312	23.12
무응답	13	0.65	22	0.22
언젠가 될 것			4,876	48.76
계	2,000	100	10,000	100

통일시기에 대한 응답의 특징을 추려 본다.

①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통일체념론자가 38.65%나 된다. 이것은 86년의 23.12%보다 훨씬 늘어난 수이다. 아마도 통일대화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② 통일이 되는 시기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20년 이후가 25.9%)졌고 곧 통일될 것으로 보는 사람(10년내 12.65%)이 많지 않다. 통일포기론자가 다수이고 곧 통일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 현실은 통일이 「명분」의 세계에서만 논의될 뿐 실제로 가슴에 와닿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1-2-2>

통 일 시 기

(성별)

비율 내용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10년 이내	157	13.3	96	11.7		
20년 이내	295	25.0	146	17.8	2	66.7
20년 이후	320	27.1	197	24.1	1	33.3
통일불가능	400	33.9	373	45.6		
무 응 답	7	0.6	6	0.7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1-2-3>

통 일 시 기

(연령별)

비율 내용	20 대		30 대		40 대		50대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10년 이내	94	13.9	51	8.9	56	13.1	52	16.3		
20년 이내	157	23.3	127	22.1	84	19.6	75	23.5		
20년 이후	193	28.6	154	26.8	98	22.8	72	22.6	1	50.0
통일 불가능	227	33.6	239	41.6	187	43.6	119	37.3	1	50.0
무 응 답	4	0.6	4	0.7	4	0.9	1	0.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1-2-4 >

통 일 시 기

(학 력 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10년 이내	14	11.7	55	16.2	108	11.4	76	12.8		
20년 이내	26	21.7	56	16.5	215	22.8	146	24.6		
20년 이후	25	20.8	77	22.6	241	25.5	174	29.3	1	50.0
통일 불가능	54	45.0	148	43.5	376	39.8	194	32.7	1	50.0
무응답	1	0.8	4	1.2	5	0.5	3	0.5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1-2-5 >

통 일 시 기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0년 이내	1	6.7	31	13.2	137	11.7	60	14.5	23	13.9	1	33.3
20년 이내	2	13.3	46	19.7	273	23.4	95	22.9	27	16.3		
20년 이후	4	26.7	54	23.1	308	26.4	104	25.1	47	28.3	1	33.3
통일 불가능	8	53.3	102	43.6	441	37.8	154	37.1	67	40.4	1	33.3
무응답			1	0.4	8	0.7	2	0.5	2	1.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1-2-6 >

통 일 시 기

(직업별)

비율 내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 업	판 매	주 부	초 중	기 능 직	제 조 업	기 타	무 응 답
	자 유 직	관 리 직			서 비 스		교 원, 공 무 원	노 동 자		(무 직 포 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0년 이내	16 (11.3)	30 (14.0)	33 (13.9)	27 (18.4)	27 (9.3)	56 (12.3)	11 (10.5)	30 (13.1)	6 (15.8)	11 (13.1)	6 (10.2)
20년 이내	38 (27.0)	40 (18.7)	68 (28.6)	29 (19.7)	89 (30.6)	72 (15.9)	19 (18.1)	52 (22.7)	6 (15.8)	14 (16.7)	16 (27.1)
20년 이후	40 (28.4)	59 (27.6)	66 (27.7)	33 (22.4)	64 (22.0)	111 (24.4)	36 (34.3)	62 (27.1)	12 (31.6)	24 (28.6)	11 (18.6)
통일불가능	45 (31.9)	85 (39.7)	70 (29.4)	55 (37.4)	109 (37.5)	212 (46.7)	39 (37.1)	84 (36.7)	14 (36.8)	34 (40.5)	26 (44.1)
무 응 답	2 (1.4)		1 (0.4)	3 (2.0)	2 (0.7)	3 (0.7)		1 (0.4)		1 (1.2)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1-2-7 >

통 일 시 기

(지역별)

비율 내용	서 울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10년 이내	65	13.1	41	10.1	57	11.0	90	15.6		
20년 이내	116	23.3	106	26.0	115	22.2	105	18.2	1	33.3
20년 이후	126	25.4	93	22.9	133	25.7	164	28.5	2	66.7
통일불가능	187	37.6	164	40.3	209	40.4	213	37.0		
무 응 답	3	0.6	3	0.7	3	0.6	4	0.7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통일시기에 대한 계층간 의견차의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체념을 많이 하여 남성의 33.9%에 대해 여성에게서는 거의 반수인 45.6%나 된다. 그것은 통일이 안되도 그만이라는 심리가 여성에게는 더 많기 때문일지 모른다.

② 중년층에게서 통일체념론이 강하여 30대(41.6%)와 40대(43.6%)는 20대(33.6%) 및 50대(37.3%)에 비해 두드러진다.

③학력이 낮을 수록 통일체념론이 강하여 대졸의 32.7%에 대해 국졸은 45%나 된다.

④ 상류층일 수록 통일체념론이 강하여 중하층의 37.1%에 대해 중상층은 43.6%, 상류층은 53.3%나 된다. 안정된 생활을 하는 층이 통일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

⑤ 학생층의 통일체념율은 훨씬 낮아 주부(46.7%), 사무관리직(39.7%) 등 다른 직종에 훨씬 뒤지고 평균치(38.65%)에 훨씬 못 미치는 29.4%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통일열망이 그들에게 많기 때문일 것이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별로 없다.

3. 統一國家體制

모든 사람이 통일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의 통일국가이어야 하고, 어떤 이념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것이다. 최근 급진적인 통일주장 또는 이념논쟁이 일어 남에 따라 통일이념과 통일국가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뜻이 없다고 본다.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86년 3월	
	명	%	명	%	명	%
자 유 민 주 국	1,602	80.10	8,542	85.42		
공산사회주의국	37	1.85	148	1.48		
혼합중간체제	284	14.20	1,020	10.20		
어떤 체제도 무방	69	3.45	270	2.70		
무 응 답	8	0.40	20	0.20		
계	2,000	100	10,000	100		

통일국가체제(이념)에 관한 의견중 특징적인 것을 추려 본다.

① 절대다수의 국민(80.1%)이 자유민주국가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표면적으로 떠들석하게 제기되고 있는 좌경적 주장들은 소수의 지식인에 의한 제기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

② 다수가 자유민주체제를 바라지만 그것(80.1%)은 3년전(86년 3월)의 85.42%에 비하면 5%이상의 감소이다. 그것은 사상적으로 일부가 바뀌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자유민주통일론자가 줄어 든 대신 86년에 비하여 혼합중간체제에 의한 통일론이나 어떤 체제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각각 늘어 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1-3-2 >

통 일 국 가 체 제

(성별)

비 율 내 용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자 유 민 주 국	924	78.4	676	82.6	2	66.7
공산사회주의국	24	2.0	13	1.6		
혼 합 중 간 체 제	187	15.9	97	11.9		
어 떤 체 제 도 무 방	41	3.5	27	3.3	1	33.3
무 응 답	3	0.3	5	0.6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1-3-3 >

통 일 국 가 체 제

(연령별)

비 율 내 용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자 유 민 주 국	480	71.1	465	80.9	379	88.3	277	86.8	1	50.0
공산사회주의국	17	2.5	12	2.1	5	1.2	3	0.9		
혼 합 중 간 체 제	145	21.5	85	14.8	26	6.1	27	8.5	1	50.0
어 떤 체 제 도 무 방	26	3.9	12	2.1	19	4.4	12	3.8		
무 응 답	7	1.0	1	0.2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1-3-4 >

통 일 국 가 체 제

(학 력 별)

비 율 내 용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자 유 민 주 국	103	85.8	283	83.2	798	84.4	416	70.2	2	100
공산사회주의국	2	1.7	10	2.9	13	1.4	12	2.0		
혼 합 중 간 체 제	6	5.0	36	10.6	107	11.3	135	22.8		
어 떤 체 제 도 무 방	8	6.7	11	3.2	25	2.6	25	4.2		
무 응 답	1	0.8			2	0.2	5	0.8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1-3-5 >

통 일 국 가 체 제

(생 활 수 준 별)

비 율 내 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자 유 민 주 국	12	80.0	190	81.2	937	80.3	326	78.6	135	81.3	2	66.7
공산사회주의국			4	1.7	19	1.6	10	2.4	4	2.4		
혼 합 중 간 체 제	2	13.3	32	13.7	169	14.5	62	14.9	19	11.4		
어 떤 체 제 도 무 방	1	6.7	8	3.4	38	3.3	15	3.6	7	4.2		
무 응 답					4	0.3	2	0.5	1	0.6	1	33.3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1-3-6 >

통 일 국 가 체 제

(직업별)

비 율 내 용	전 문 자유직	사 무 관리직	학 생	농 어업	판 매 서비스	주 부	초·중 교원,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자 유 민 주 국	115 (81.6)	177 (82.7)	151 (63.4)	127 (86.4)	242 (83.2)	388 (85.5)	83 (79.0)	181 (79.0)	29 (76.3)	66 (78.6)	43 (72.9)
공산사회주의국	1 (0.7)	2 (0.9)	13 (5.5)	2 (1.4)	5 (1.7)	8 (1.8)		3 (1.3)		1 (1.2)	2 (3.4)
혼 합 중 간 체 제	22 (15.6)	30 (14.0)	57 (23.9)	13 (8.8)	36 (12.4)	39 (8.6)	21 (20.0)	39 (17.0)	5 (13.2)	13 (15.5)	9 (15.3)
어 떤 체 제 도 무 방	2 (1.4)	5 (2.3)	15 (6.3)	5 (3.4)	8 (2.7)	19 (4.2)	1 (1.0)	4 (1.7)	1 (2.6)	4 (4.8)	5 (8.5)
무 응 답	1 (0.7)		2 (0.8)					2 (0.9)	3 (7.9)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1-3-7 >

통 일 국 가 체 제

(지역별)

비 율 내 용	서 율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자 유 민 주 국	412	82.9	333	81.8	411	79.5	444	77.1	2	66.7
공산사회주의국	3	0.6	5	1.2	11	2.1	18	3.1		
혼 합 중 간 체 제	59	11.9	60	14.7	76	14.7	89	15.5		
어 떤 체 제 도 무 방	19	3.8	7	1.7	18	3.5	24	4.2	1	33.3
무 응 답	4	0.8	2	0.5	1	0.2	1	0.2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① 앞의 표에서 보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통일을 더 바라고 있다. (남자 78.4% 대 여자 82.6%) 이것은 여성이 더 보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고령일 수록 자유민주통일을 더 바라고 있어 20대의 71.1%에 대해 40대 88.3%, 50대 86.8%이다. 그 대신 젊은 층은 혼합체제를 노년층보다 더 바라고 있어 50대의 8.5%에 대해 20대는 21.5%나 된다.

③ 대졸자는 다른 학력층에 비해 자유민주통일희망의 비율이 낮고 혼합체제희망율이 높다. 지식인의 사상적인 면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아 주목된다.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다.

⑤ 학생과 교원 및 공직자가 혼합체제를 바라는 율이 높고 학생은 공산통일을 바라는 율이 다른 직업보다 높은 반면 (5.5%) 자유민주통일 희망율은 63.4%에 불과하다. 학생의 체제이념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별로 없으나 소도시와 농촌에서 자유민주통일론이 약간 약하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한다.

4. 統一方法

통일을 하는 방법은 평화통일이나 무력통일이나에 따라 또는 시간적으로 일괄해결이나 점진해결이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동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물음속에 엮어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1-4-1 >

통 일 방 법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86 년 3 월	
	명	%	명	%	명	%
협상 일괄 해결	603	30.15	8,000	80.00		
군사적 방법	44	2.20	488	4.88		
전복 혁명 방법	34	1.70				
협력 점진 방법	1,312	65.60				
무 응 답	7	0.35	34	0.34		
강대국 중재통일			598	5.98		
어떤 방법도 무방			880	8.80		
계	2,000	100	10,000	100		

통일방법에 대한 의견중 특징이 되는 것을 추려 본다.

① 폭력방법(군사방법, 혁명)을 찬성하는 사람은 3.9%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부의 과격 급진론자가 혁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극소수임을 알려 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② 북한이 추구하는 일괄해결론과 남한의 점진해결론에 대해서도 후자를 찬성하는 사람이 65.6%나 되는데 전자를 찬성하는 사람은 그것의 반도 안되는 30.15%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부 재야권에서 통일을 서두르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적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86년과는 크게 달라졌지만 그것은 문항내용의 큰 차이때문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1-4-2 >

통 일 방 법

(성별)

비 율 내 용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협상 일괄 해결	333	28.2	270	33.0		
군사적 방법	25	2.1	19	2.3		
진복 혁명 방법	20	1.7	13	1.6	1	33.3
협력 점진 방법	800	67.9	510	62.3	2	66.7
무 응 답	1	0.1	6	0.7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1-4-3 >

통 일 방 법

(연령별)

비 율 내 용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협상 일괄 해결	154	22.8	147	25.6	162	37.8	140	43.9		
군사적 방법	13	1.9	13	2.3	7	1.6	11	3.4		
진복 혁명 방법	9	1.3	6	1.0	11	2.6	8	2.5		
협력 점진 방법	497	73.6	408	71.0	247	57.6	158	49.5	2	100
무 응 답	2	0.3	1	0.2	2	0.5	2	0.6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1-4-4 >

통 일 방 법

(학력별)

비 율 내 용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협상 일괄 해결	48	40.0	157	46.2	304	32.2	93	15.7	1	50.0
군사적 방법	7	5.8	13	3.8	20	2.1	4	0.7		
전복 혁명 방법	4	3.3	9	2.6	11	1.2	10	1.7		
협력 점진 방법	61	50.8	159	46.8	607	64.2	484	81.6	1	50.0
무 응 답			2	0.6	3	0.3	2	0.3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1-4-5 >

통 일 방 법

(생활수준별)

비 율 내 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협상 일괄 해결	3	20.0	70	29.9	344	29.5	136	32.8	49	29.5	1	33.3
군사적 방법	1	6.7	10	4.3	21	1.8	10	2.4	2	1.2		
전복 혁명 방법	2	13.3	6	2.6	17	1.5	7	1.7	2	1.2		
협력 점진 방법	9	60.0	148	63.2	778	66.7	262	63.1	113	68.1	2	66.7
무 응 답					7	0.6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1-4-6 >

통 일 방 법

(직업별)

비 율 내 용	전 문 자 유 직	사 무 관 리 직	학 생	농 어 업	판 매 서 비 스	주 부	초 중 고 공 부 인	기 능 직 노 동 자	제 조 업	기 타 (무 직 포 함)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협 상 일 관 해 결	33 (23.4)	59 (27.6)	37 (15.5)	65 (44.2)	92 (31.6)	172 (37.9)	20 (19.0)	77 (33.6)	13 (34.2)	17 (20.2)	18 (30.5)
군 사 적 방 법		3 (1.4)	5 (2.1)	2 (1.4)	4 (1.4)	17 (3.7)	1 (1.0)	8 (3.5)		4 (4.8)	
전 북 혁 명 방 법	3 (2.1)	1 (0.5)	6 (2.5)	5 (3.4)	3 (1.0)	10 (2.2)		3 (1.3)		2 (2.4)	1 (1.7)
협 력 점 진 방 법	105 (74.5)	151 (70.6)	188 (79.0)	75 (51.0)	191 (65.6)	251 (55.3)	84 (80.4)	141 (61.6)	25 (65.8)	61 (72.6)	40 (67.8)
무 응 답			2 (0.8)		1 (0.3)	4 (0.9)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1-4-7 >

통 일 방 법

(지역별)

비 율 내 용	서 울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협 상 일 관 해 결	138	27.8	127	31.2	149	28.8	187	32.5	2	66.7
군 사 적 방 법	6	1.2	6	1.5	7	1.4	25	4.3		
전 북 혁 명 방 법	3	0.6	6	1.5	10	1.9	15	2.6		
협 력 점 진 방 법	346	69.6	266	65.4	351	67.9	348	60.4	1	33.3
무 응 답	4	0.8	2	0.5			1	0.2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① 앞의 <표 1-4-2>에서 보듯이 여자는 협상일괄해결에 의한 조급한 통일을 더 바라고, 남자는 점진통일을 여자보다 더 바라(여자 62.3% 대 남자 67.9%)고 있어 이 경우 여성의 조급함을 노정하고 있다.

② 젊을 수록 점진통일을 바라고 있고(50대의 49.5% 대 20대 73.6%), 늙을 수록 일괄해결(20대 22.8% 대 50대 43.9%)을 더 바란다. 노장년층일 수록 생전에 통일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

③ 학력이 높은 층이 대체로 점진통일을 바라고 저학력층은 일괄해결을 더 바라는 편이다.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다.

⑤ 농어민중에 일괄해결주장자가 많은 편(평균치 30.15%에 대해 44.2%)이고 주부층도 그런 편(37.9%)이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별로 없고 도시인중에서 점진통일론이 읍·면보다 우세한 편이다.

第 2 節 南北對話觀

1. 對南提議 受容

북한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여러 제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받아들일만 하고, 어떤 것은 무리한 것도 있다고 본다. 북한의 각종제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1>

대남제의 수용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가 급 적 수 용		413	20.65
선 별 적 대 응		1,368	68.40
무 시 해 야		210	10.50
무 응 답		9	0.45
계		2,000	100

<표 2-1-1>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의도를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68.4%에 이른다. 이에 대해 가급적 받아들이라는 의견(20.65%)이 기본노선에 변화가 없는 한 무시하라는 의

견 (10.5 %) 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2-2-2 >

대 남 제 의 수 용

(성 별)

내 용 \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가 급 적 수 용	277	23.5	135	16.5	1	33.3
선 별 적 대 응	781	66.2	586	71.6	1	33.3
무 시 해 야	116	9.8	93	11.4	1	33.3
무 응 답	5	0.4	4	0.5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2-2-3 >

대 남 제 의 수 용

(연 령 별)

내 용 \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가 급 적 수 용	174	25.8	120	20.9	66	15.4	53	16.6		
선 별 적 대 응	459	68.0	407	70.8	302	70.4	198	62.1	2	100
무 시 해 야	37	5.5	46	8.0	61	14.2	66	20.7		
무 응 답	5	0.7	2	0.3			2	0.6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2-2-4>

대 남 제 의 수 용

(학 력 별)

비 율 내 용	국 줄 이 하		중 줄		고 줄		대 재 이 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가 급 적 수 용	26	21.7	66	19.4	160	16.9	161	27.2		
선 별 적 대 응	70	58.3	216	63.5	687	72.7	394	66.4	1	50.0
무 시 해 야	23	19.2	56	16.5	96	10.2	34	5.7	1	50.0
무 응 답	1	0.8	2	0.6	2	0.2	4	0.7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2-2-5>

대 남 제 의 수 용

(생 활 수 준 별)

비 율 내 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가 급 적 수 용	1	6.7	46	19.7	230	19.7	89	21.4	47	28.3		
선 별 적 대 응	10	66.7	159	67.9	815	69.8	273	65.8	108	65.1	3	100
무 시 해 야	4	26.7	29	12.4	117	10.0	51	12.3	9	5.4		
무 응 답					5	0.4	2	0.5	2	1.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2-2-6>

대 남 제 의 수 용

(직업별)

비 율 내 용	전 문 자유직	사 무 관리직	학 생	농 어업	판 매 서비스	주 부	초 중 공 원 공 부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가 급적 수 용	34 (24.1)	42 (19.6)	87 (36.6)	20 (13.6)	53 (18.2)	72 (15.9)	22 (21.0)	51 (22.3)	9 (23.7)	14 (16.7)	9 (15.3)
선 별적 수 용	87 (61.7)	152 (71.0)	142 (59.7)	102 (69.4)	206 (70.8)	321 (70.7)	76 (72.4)	152 (66.4)	25 (65.8)	58 (69.0)	47 (79.7)
무 시 해 야	20 (14.2)	20 (9.3)	7 (2.9)	25 (17.0)	30 (10.3)	60 (13.2)	6 (5.7)	25 (10.9)	4 (10.5)	10 (11.9)	3 (5.1)
무 응 답			2 (0.8)		2 (0.7)	1 (0.2)	1 (1.0)	1 (0.4)		2 (2.4)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2-2-7>

대 남 제 의 수 용

(지역별)

비 율 내 용	서 울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가 급적 수 용	107	21.5	89	21.9	85	16.4	132	22.9		
선 별적 대 응	335	67.4	282	69.3	379	73.3	370	64.2	2	66.7
무 시 해 야	52	10.5	33	8.1	52	10.1	72	12.5	1	33.3
무 응 답	3	0.6	3	0.7	1	0.2	2	0.3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① 여성이 남성보다는 선별적 대응(신중한 북한제의 수용)을 더 바라고 있는 편이고 남자는 여성보다 가급적 수용하라는 의견비율이 높아 16.5%에 대해 23.5%에 이른다.

② 고령층일수록 북한제의를 무시하라는 의견이 높은 편(20대의 5.5%에 대해 50대는 20.7%)이고 젊은 층일 수록 수용하라는 의견 비율이 높은 편(50대의 16.6% 대 20대 25.8%)이다. 살아 온 경험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③ 중간학력층이 더 신중론에 기울고 저학력일 수록 무시하라는 의견이 더 높다.

④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북한제의를 수용하라는 의견이 높아 상류층의 6.7%에 대해 하층은 28.3%나 된다. 이것은 통일에 따르는 이해관계의 유무와 관련이 깊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⑤ 학생과 노동자(특히 학생)는 북한제의 수용주장이 많아 농어민의 13.6%에 대해 학생은 36.6%나 된다. 최근 학생들의 주장과 연관하여 생각할만한 반응이다.

⑥ 지역적 의견차는 별로 없으나 중소도시민이 신중대응을 더 바라는 편이어서 평균치 68.4%에 대해 73.3%에 이른다.

2. 對話의 重點

남북간에는 여러 형태의 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대화형태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1 >

대 화 중 점

(전체)

비 율 내 용	전 체		86년 3월	
	명	%	명	%
고 위 당 국 회 담	591	29.55	4,482	44.82
적 십 자 회 담	531	26.55		
경 제 회 담	463	23.15		
국 회 회 담	288	14.40	1,424	14.24
체 육 회 담	102	5.10		
무 응 담	25	1.25	74	0.74
비 정 치 회 담			3,443	34.43
기 타			577	5.77
계	2,000	100	10,000	100

대화형태중 중점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한 의견중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어떤 회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두드러진 의견집약이 없다.

② 고위당국자회담 (29.55%)과 적십자회담 (26.55%) 및 경제회담 (23.15%)에 대한 중요도가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다.

③ 체육회담을 중시하는 사람은 불과 5.1%밖에 안된다. 체육회담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회담을 특별히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대화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모든 대화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2-2-2 >

대 화 중 점

(성별)

내 용 \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고 위 당 국 회 담	408	34.6	182	22.2	1	33.3
적 십 자 회 담	253	21.5	277	33.9	1	33.3
경 제 회 담	264	22.4	198	24.2	1	33.3
국 회 회 담	182	15.4	106	13.0		
체 육 회 담	54	4.6	48	5.9		
무 응 답	18	1.5	7	0.9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2-2-3 >

대 화 중 점

(연령별)

내 용 \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고 위 당 국 회 담	155	23.0	166	28.9	135	31.5	135	42.3		
적 십 자 회 담	174	25.8	140	24.3	130	30.3	86	27.0	1	50.0
경 제 회 담	188	27.9	142	24.7	87	20.3	45	14.1	1	50.0
국 회 회 담	109	16.1	85	14.8	56	13.1	38	11.9		
체 육 회 담	33	4.9	36	6.3	19	4.4	14	4.4		
무 응 답	16	2.4	6	1.0	2	0.5	1	0.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2-2-4 >

대 화 중 점

(학력별)

비 율 내 용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고위당국회담	49	40.8	102	30.0	278	29.4	161	27.2	1	50.0
적십자회담	39	32.5	99	29.1	275	29.1	118	19.9		
경제회담	9	7.5	63	18.5	206	21.8	184	31.0	1	50.0
국회회담	19	15.8	47	13.8	132	14.0	90	15.2		
체육회담	4	3.3	26	7.6	51	5.4	21	3.5		
무 응 답			3	0.9	3	0.3	19	3.2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2-2-5 >

대 화 중 점

(생활수준별)

비 율 내 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고위당국회담	5	33.3	28	24.8	349	29.9	129	31.1	50	30.1		
적십자회담	1	6.7	62	26.5	309	26.5	116	28.0	42	25.3	1	33.3
경제회담	6	40.0	62	26.5	264	22.6	89	21.4	40	24.1	2	66.7
국회회담	2	13.3	33	14.1	170	14.6	60	14.5	23	13.9		
체육회담	1	6.7	15	6.4	63	5.4	15	3.6	8	4.8		
무 응 답			4	1.7	12	1.0	6	1.4	3	1.8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2-2-6>

대 화 중 점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자유직	사무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서비스	주부	초·중·고·대학원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고위당국회담	55 (39.0)	63 (29.4)	49 (20.6)	53 (36.1)	96 (33.0)	97 (21.4)	37 (35.2)	80 (34.9)	12 (31.6)	30 (35.7)	19 (32.2)
적십자회담	31 (22.0)	47 (22.0)	50 (21.0)	40 (27.2)	64 (22.0)	173 (38.1)	27 (25.7)	58 (25.3)	15 (39.5)	16 (19.0)	10 (16.9)
경제회담	31 (22.0)	62 (29.0)	72 (30.3)	20 (13.6)	67 (23.0)	98 (21.6)	26 (24.8)	48 (21.0)	5 (13.2)	18 (21.4)	16 (27.1)
국회회담	15 (10.6)	33 (15.4)	45 (18.9)	25 (17.0)	45 (15.5)	55 (12.1)	12 (11.4)	32 (14.0)	2 (5.3)	14 (16.7)	10 (16.9)
체육회담	6 (4.3)	6 (2.8)	13 (5.5)	9 (6.1)	16 (5.5)	29 (6.4)	3 (2.9)	9 (3.9)	2 (5.3)	5 (6.0)	4 (6.8)
무응답	3 (2.1)	3 (1.4)	9 (3.8)		3 (1.0)	2 (0.4)		2 (0.9)	2 (5.3)	1 (1.2)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2-2-7>

대 화 중 점

(지역별)

비율 내용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고위당국회담	159	32.0	122	30.0	139	26.9	171	29.7		
적십자회담	140	28.2	124	30.5	123	23.8	143	24.8	1	33.3
경제회담	116	23.3	91	22.4	133	25.7	122	21.2	1	33.3
국회회담	54	10.9	46	11.3	87	16.8	100	17.4	1	33.3
체육회담	21	4.2	14	3.4	30	5.8	37	6.4		
무응답	7	1.4	10	2.5	5	1.0	3	0.5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① 앞의 표에서 보듯이 남자는 고위당국회담을 더 중시(여성 22.2%, 남성 34.6%)하는 편이고 여성은 적십자회담을 중시하는 율이 높다.(남성 21.5%, 여성 33.9%) 여성이 더 가정적이고 인도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② 고령층일수록 고위당국회담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고(20대 23%대 50대 42.3%) 있는 반면, 젊은수록 경제 회담(50대 14.1%, 20대 27.9%)이나 국회회담을 중시하는 율이 다른 노장층보다 높다. 이것은 정부당국이 통일을 주도할 필요가 없다는 젊은 층의 최근 주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③ 고학력일 수록 경제 회담 치중에 율이 높아 국졸의 7.5%에 대해 대졸은 31%나 된다. 그 대신 저학력층일 수록 고위당국회담(대졸 27.2% 대 국졸 40.8%)이나 적십자회담(대졸 19.9% 대 국졸 32.5%)에 치중하기를 바라는 율이 높은 편이다.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거의 없으나 상류층은 경제 회담을 더 중시하는 편이다.

⑤ 주부와 학생층에서는 정부고위회담에 대한 반응이 낮은 편이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별로 없으나 대도시일 수록 고위당국회담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높고 농촌일 수록 국회회담 지지율이 약간 높은 편이다.

3. 北韓의 當局對話 忌避理由

북한은 최근에 각계 각층과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당국대화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북한의 그러한 태도가 왜 생기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3-1>

북한의 당국대화 기피이유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한 국 정 부 고 립		444	22.20
재 야 의 입 장 강 화		169	8.45
교 류 개 방 지 연		484	24.20
평 화 통 일 불 원		829	41.45
무 응 답		74	3.70
계		2,000	100

앞의 <표2-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 남북당국대화를 기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있다.

① 가장 많은 사람(41.45%)이 평화통일을 북한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당국대화를 기피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폭력(무력, 혁명)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한국정부를 국민과 고립시키기 위해(22.2%)서 또는, 북한의 개방과 남북교류를 지연시키려고(24.2%) 남북당국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에 이른다.

③ 그러나 한국내 재야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려고 당국대화를 기피한다는 의견은 불과 8.45%에 불과하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2-3-2 >

북한의 당국대화 기피이유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한 국 정 부 고 립	248	21.0	195	23.8	1	33.3		
재 야 의 입 장 강 화	111	9.4	58	7.1				
교 류 개 방 지 연	309	26.2	174	21.3	1	33.3		
평 화 통 일 불 원	455	38.6	373	45.6	1	33.3		
무 응 답	56	4.7	18	2.2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2-3-3 >

북한의 당국대화 기피이유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한 국 정 부 고 립	139	20.6	129	22.4	91	21.2	85	26.6				
재 야 의 입 장 강 화	67	9.9	60	10.4	26	6.1	16	5.0				
교 류 개 방 지 연	203	30.1	151	26.3	80	18.6	49	15.4	1	50.0		
평 화 통 일 불 원	226	33.5	215	37.4	222	51.7	165	51.7	1	50.0		
무 응 답	40	5.9	20	3.5	10	2.3	4	1.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2-3-4>

북한의 당국대화 기피이유

(학력별)

내 용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한 국 정 부 고 립	26	21.7	73	21.5	206	21.8	139	23.4				
재야의입장강화	5	4.2	26	7.6	77	8.1	61	10.3				
교류개방지연	18	15.0	58	17.1	236	25.0	171	28.8	1	50.0		
평화통일불원	68	56.7	176	51.8	409	43.3	175	29.5	1	50.0		
무 응 답	3	2.5	7	2.1	17	1.8	47	7.9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2-3-5>

북한의 당국대화 기피이유

(생활수준별)

내 용	비 율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한 국 정 부 고 립	4	26.7	46	19.7	279	23.9	84	20.2	31	18.7				
재야의입장강화	3	20.0	21	9.0	97	8.3	34	8.2	14	8.4				
교류개방지연	2	13.3	52	22.2	297	25.4	94	22.7	38	22.9	1	33.3		
평화통일불원	6	40.0	109	46.6	455	39.0	186	44.8	71	42.8	2	66.7		
무 응 답			6	2.6	39	3.3	17	4.1	12	7.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2-3-6>

북한의 당국대화 기피이유

(직업별)

비율 내 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업	판 매	주 부	초 중 고 등 학 생	기 능적 노 동자	제 조업	기 타(직포함)	무응답
	자 유직 명 (%)	관 리직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한국정부고립	35 (24.8)	46 (21.5)	46 (19.3)	27 (18.4)	65 (22.3)	118 (26.0)	20 (19.0)	51 (22.3)	8 (21.1)	14 (16.7)	14 (23.7)
재야의입장강화	15 (10.6)	16 (7.5)	32 (13.4)	9 (6.1)	29 (10.0)	33 (7.3)	7 (6.7)	19 (8.3)	3 (7.9)	5 (6.0)	1 (1.7)
교류개방지연	37 (26.2)	52 (24.3)	70 (29.4)	24 (16.3)	64 (22.0)	86 (18.9)	35 (33.3)	65 (28.4)	7 (18.4)	24 (28.6)	20 (33.9)
평화통일불원	46 (32.6)	98 (45.8)	65 (27.3)	83 (56.5)	123 (42.3)	211 (46.5)	40 (38.1)	88 (38.4)	15 (39.5)	40 (47.6)	20 (33.9)
무 응 답	8 (5.7)	2 (0.9)	25 (10.5)	4 (2.7)	10 (3.4)	6 (1.3)	3 (2.9)	6 (2.6)	5 (13.2)	1 (1.2)	4 (6.8)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2-3-7>

북한의 당국대화 기피이유

(지역별)

비율 내 용	서 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한국정부고립	120	24.1	84	20.6	123	23.8	117	20.3		
재야의입장강화	51	10.3	27	6.6	32	6.2	58	10.1	1	33.3
교류개방지연	120	24.1	106	26.0	127	24.6	130	22.6	1	33.3
평화통일불원	185	37.2	171	42.0	216	41.8	256	44.4	1	33.3
무 응 답	21	4.2	19	4.7	19	3.7	15	2.6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① 앞의 <표 2-3-2>에서 보듯이 북한의 당국대화기피 이유에 대해 여성은 평화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남성보다 많아 38.6% 대 45.6%에 이른다. 여성이 북한에 대하여 더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노장년은 북한이 평화통일을 원치 않아 당국대화를 기피한다고 보는율이 높아 20대의 33.5%에 대해 50대와 40대는 51.7%에 이른다. 청년층과 노장년층의 뚜렷한 대북관차이가 엿보인다.

③ 저학력일 수록 북한이 평화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비율이 높아 대졸의 29.5%에 대해 중졸 51.8%, 국졸 56.7%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고학력자는 교류개방지연을 위해 당국대화를 기피한다고 보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국졸 15% 대 대졸 28.8%)이다.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다.

⑤ 학생층은 북한이 평화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사무관리직의 45.8%에 대해 27.3%)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적음을 나타낸다.

4. 南北頂上會談

남한은 1980년에 와서 계속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것을 수락하지 않고 있거니와 그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어떤가를 알아 보았다.

<표 2-4-1>

남북정상회담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조 속 개 최 되 야	814	40.70
명분 있으나 실현불능 하 는 편 이 좋 다	681	34.05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397	19.85
무 응 답	92	4.60
무 응 답	16	0.80
계	2,000	100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중 특징을 추려 본다.

① 가장 많은 사람들(40.7%)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개최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은 정상이 만나 남북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의 발로라고 본다.

② 「명분은 있으나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34.05%)도 적지 않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은 불과 4.6%에 지나지 않으며 개최에 적극적인 의견이 60.55%나 되어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2-4-2>

남 북 정 상 회 담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조속 개최되야	532	45.1	281	34.4	1	33.3		
명분 있으나 실현불능	357	30.3	323	39.5	1	33.3		
하는 편이 좋다	228	19.3	168	20.5	1	33.3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54	4.6	38	4.6				
무 응 답	8	0.7	8	1.0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2-4-3>

남 북 정 상 회 담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조속 개최되야	291	43.1	241	41.9	158	36.8	124	38.9				
명분있으나 실현불능	228	33.8	213	37.0	154	35.9	85	26.6	1	50.0		
하는 편이 좋다	119	17.6	102	17.7	89	20.7	86	27.0	1	50.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6	3.9	18	3.1	25	5.8	23	7.2				
무 응 답	11	1.6	1	0.2	3	0.7	1	0.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2-4-4>

남 북 정 상 회 담

(학 력 별)

내 용 \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조속 개최되야	50	41.7	118	34.7	373	39.5	272	45.9	1	50.0
명분 있으나 실현불능	25	20.8	108	31.8	348	36.8	199	33.6	1	50.0
하는 편이 좋다	34	28.3	85	25.0	187	19.8	91	15.3		
해도 좋고 안해도좋다	9	7.5	27	7.9	32	3.4	24	4.0		
무 응 답	2	1.7	2	0.6	5	0.5	7	1.2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2-4-5>

남 북 정 상 회 담

(생활수준별)

내 용 \ 비 율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조속 개최되야	4	26.7	87	37.2	486	41.6	168	40.5	68	41.0	1	33.3
명분 있으나 실현불능	7	46.7	93	39.7	392	33.6	141	34.0	47	28.3	1	33.3
하는 편이 좋다	2	13.3	42	17.9	233	20.0	84	20.2	36	21.7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	13.3	10	4.3	48	4.1	19	4.6	13	7.8		
무 응 답			2	0.9	8	0.7	3	0.7	2	1.2	1	33.3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2-4-6>

남 북 정 상 회 담

(직업별)

비율 내 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 업	판 매	주 부	초 중	기능 직	제 조 업	기 타	무 응 답
	자유 직	관 리 직	학 생	농 어 업	서 비 스	주 부	공 무 원	노 동 자	제 조 업	(무 직 포함)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조속 개최되어야	60 (42.6)	91 (42.5)	101 (42.4)	73 (49.7)	132 (45.4)	143 (31.5)	54 (51.4)	93 (40.6)	15 (39.5)	32 (38.1)	20 (33.9)
명분 있으나 실행불능	47 (33.3)	80 (37.4)	82 (34.5)	40 (27.2)	96 (33.0)	182 (40.1)	29 (27.6)	68 (29.7)	14 (36.8)	23 (27.4)	20 (33.9)
하는 편이 좋다	29 (20.6)	36 (16.8)	36 (15.1)	28 (19.0)	50 (17.2)	106 (23.3)	15 (14.3)	57 (24.9)	5 (13.2)	22 (26.2)	13 (22.0)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5 (3.5)	6 (2.8)	11 (4.6)	6 (4.1)	12 (4.1)	21 (4.6)	6 (5.7)	10 (4.4)	3 (7.9)	7 (8.3)	5 (8.5)
무 응 답		1 (0.5)	8 (3.4)		1 (0.3)	2 (0.4)	1 (1.0)	1 (0.4)	1 (2.6)		1 (1.7)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2-4-7>

남 북 정 상 회 담

(지역별)

비율 내 용	서 울		직 할 시		기 타 시		음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조속 개최되어야	206	41.4	190	46.7	182	35.2	234	40.6	2	66.7
명분 있으나 실행불능	156	31.4	124	30.5	219	42.4	181	31.4	1	33.3
하는 편이 좋다	103	20.7	74	18.2	98	19.0	122	21.2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6	5.2	14	3.4	14	2.7	38	6.6		
무 응 답	6	1.2	5	1.2	4	0.8	1	0.2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① 앞의 <표2-4-2>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는 남북정상회담의 조속개최를 더 바라고 있으며(여성 34.4% 대 남성 45.1%), 여성은 정상회담에 비관적인 편(남성 30.3% 대 여성 39.5%)이다.

② 연령별 의견차는 거의 없으나 고령층일 수록 정상회담에 긍정적이다.

③ 학력별 의견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더 바라고 있다.

④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회의적(하층의 28.3% 대 상층 46.7%)이고 하층일 수록 조속 개최(상류 26.7% 대 하층 41%)를 바란다. 하층은 정상회담에 의한 어떤 변화로 자신의 처지변화를 상류층보다 더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⑤ 공직자가 다른 직종보다 조속개최를 바라는 편이고 중소도시인과 주부가 회의적이다.

第 3 節 統一論議에 대한 意見

1. 密入北 行爲

일부의 정치인과 종교인 및 학생등이 당국에 알리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일이 생기면서 재야는 이를 통일행위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당국과 체제내적 정당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논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한 이른바 공안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표 3-1-1>

밀 입 북 행 위 평 가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통일에 방해		796	39.80
통일, 대화에 유익		366	18.30
대남공작에 이용		688	34.40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132	6.60
무 응 답		18	0.90
계		2,000	100

밀입북에 대한 평가중 두드러진 의견을 추려 본다.

① 밀입북은 통일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사람(39.8%)과 동기가 순수해도 대남공작에 이용된다고 보는 사람(34.4%)을 합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다수(74.2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통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과 북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밀입북후에 남북대화는 오히려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오히려 냉각됐던 것이다.

② 밀입북이 통일과 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3%에 불과하여 그 행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3-1-2>

밀 입 북 행 위 평 가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통일에 방해	473	40.1	321	39.2	2	66.7		
통일, 대화에 유익	244	20.7	122	14.9				
대남공작에 이용	368	31.2	319	39.0	1	33.3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85	7.2	47	5.7				
무 응 답	9	0.8	9	1.1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3-1-3>

밀 입 북 행 위 평 가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일에 방해	206	30.5	237	41.2	192	44.8	159	49.8	2	100		
통일, 대화에 유익	179	26.5	99	17.2	59	13.8	29	9.1				
대남공작에 이용	222	32.9	197	34.3	152	35.4	117	36.7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61	9.0	35	6.1	23	5.4	13	4.1				
무 응 답	7	1.0	7	1.2	3	0.7	1	0.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3-1-4>

밀 입 북 행 위 평 가

(학력별)

내 용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일에 방해	62	51.7	165	48.5	378	40.0	189	31.9	2	100		
통일, 대화에 유익	14	11.7	45	13.2	144	15.2	163	27.5				
대남공작에 이용	35	29.2	108	31.8	358	37.9	187	31.5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9	7.5	19	5.6	59	6.2	45	7.6				
무 응 답			3	0.9	6	0.6	9	1.5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3-1-5>

밀 입 북 행 위 평 가

(생활수준별)

비율 내 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일에 방해	8	53.3	85	36.3	470	40.3	169	40.7	62	37.3	2	66.7
통일, 대화에 유익	1	6.7	34	14.5	208	17.8	81	19.5	42	25.3		
대남공작에 이용	5	33.3	97	41.5	405	34.7	135	32.5	45	27.1	1	33.3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1	6.7	14	6.0	79	6.8	23	5.5	15	9.0		
무 응 답			4	1.7	5	0.4	7	1.7	2	1.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3-1-6>

밀 입 북 행 위 평 가

(직업별)

비율 내 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 업	판 매	주 부	초 중	기 능 직	제 조 업	기 타	무 응 답
	자유직	관리직			서비스		교원, 공무원	노동자		(무직 포함)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일에 방해	55 (39.0)	81 (37.9)	58 (24.4)	80 (54.4)	125 (43.0)	199 (43.8)	40 (38.1)	91 (39.7)	13 (34.2)	31 (36.9)	23 (39.0)
통일, 대화에 유익	28 (19.9)	42 (19.6)	90 (37.8)	21 (14.3)	47 (16.2)	57 (12.6)	15 (14.3)	35 (15.3)	8 (21.1)	12 (14.3)	11 (18.6)
대 남 공 작 에 이 용	48 (34.0)	83 (38.8)	66 (27.7)	38 (25.9)	100 (34.4)	171 (37.7)	36 (34.3)	81 (35.4)	13 (34.2)	31 (36.9)	21 (35.6)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8 (5.7)	8 (3.7)	21 (8.8)	7 (4.8)	15 (5.2)	24 (5.3)	13 (12.4)	21 (9.2)	2 (5.3)	9 (10.7)	4 (6.8)
무 응 답	2 (1.4)		3 (1.3)	1 (0.7)	4 (1.4)	3 (0.7)	1 (1.0)	1 (0.4)	2 (5.3)	1 (1.2)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3-1-7>

밀 입 복 행 위 평 가

(지역별)

내 용	비 율		서 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통일에 방해	161	32.4	175	43.0	220	42.6	238	41.3	2	66.7		
통일, 대화에 유익	101	20.3	72	17.7	78	15.1	115	20.0				
대남공작에 이용	195	39.2	128	31.4	184	35.6	180	31.3	1	33.3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	34	6.8	28	6.9	31	6.0	39	6.8				
무 응 답	6	1.2	4	1.0	4	0.8	4	0.7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밀입복에 대한 평가중 특징적인 것을 추려 본다.

① 남자가 여자보다는 밀입복이 통일대화에 유익하다고 보는 비율이 많아 14.9% 대 20.7%이고 여자는 남자보다 그것을 대남공작에 이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율이 높아 31.2% 대 39%에 이른다. 여성이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노령층일 수록 밀입복이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율이 높아 20대의 30.5% 대 50대의 49.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대신 젊은 층일 수록 밀입복이 통일·대화에 유익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 50대의 9.1%에 대해 20대는 26.5%나 된다.

이런 반응은 젊은 층이 통일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조건적인데 반해 노장층은 신중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저학력층일 수록 통일에 방해가 된다는 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졸자의 31.9%에 대해 국졸자는 51.7%나 된다.

한편 고학력자일 수록 통일·대화에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아 국졸자의 11.7%에 대해 대졸자는 27.5%에 이른다.

④ 생활수준에 따른 의견차는 별로 없으나 상류층은 밀입북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하층 37.3% 대 상층 53.3%)이다.

⑤ 직종에 따르는 의견차는 학생만 두드러지게 밀입북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통일·대화에 유익하다는 의견에 있어 평균 18.3%에 대해 대학생은 37.8%) 그리고 통일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은 농어민의 54.4%에 비해 24.4%에 불과하다.(평균 39.8%) 학생이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과 무조건적인 통일지향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⑥ 지역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으나 서울시민은 다른 지역민보다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비율이 적은 편이다.(타지역은 40% 이상인데 비하여 서울은 32.4%)

2. 密入北 處理

당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

밀 입 북 처 리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위법이므로 처벌		1,040	52.00
반국가 행위 안하면 관용		798	39.90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불가		149	7.45
무 응 답		13	0.65
계		2,000	100

<표 3-2-1>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밀입북행위가 위법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과반수를 넘는 52%에 이른다. 밀입북이 통일과 대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 사람이 절대다수이었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국민성이 처벌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② 위법은 했지만 반국가행위를 안했으면 관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여서 39.9%나 된다.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이 꽤 많은 것이다.

③ 통일에 도움을 주었으니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은 7.45%에 불과하다. 재야측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7.45%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3-2-2>

밀 입 북 처 리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위법이므로 처벌	564	47.8	473	57.8	3	100		
반국가행위 안하면 관용	489	41.5	309	37.8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불가	117	9.9	32	3.9				
무 응 답	9	0.8	4	0.5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3-2-3>

밀 입 북 처 리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위법이므로 처벌	249	36.9	305	53.0	268	62.5	216	67.7	2	100		
반국가행위 안하면 관용	333	49.3	228	39.7	148	34.5	89	27.9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불가	86	12.7	42	7.3	9	2.1	12	3.8				
무 응 답	7	1.0			4	0.9	2	0.6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3-2-4>

밀 입 북 처 리

(학력별)

내 용	비 율		국 줄 이 하		중 줄		고 줄		대 재 이 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위법이므로 처벌	75	62.5	210	61.8	535	56.6	218	36.8	2	100		
반국가행위 안하면 관용	37	30.8	110	32.4	361	38.2	290	48.9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불가	8	6.7	17	5.0	48	5.1	76	12.8				
무 응 답			3	0.9	1	0.1	9	1.5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3-2-5>

밀 입 북 처 리

(생활수준별)

내 용	비 율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위법이므로 처벌	7	46.7	130	55.6	617	52.9	222	53.5	63	38.0	1	33.3		
반국가행위 안하면 관용	7	46.7	92	39.3	473	40.5	146	35.2	78	47.0	2	66.7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불가	1	6.7	10	4.3	70	6.0	44	10.6	24	14.5				
무 응 답			2	0.9	7	0.6	3	0.7	1	0.6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3-2-6>

밀 입 북 처 리

(직업별)

비율 내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 업	판 매	주 부	초 중	기 능 직	제 조 업	기 타	무 응 답	
	자유직 관리직	학생	농어업	서비스	주부	교원, 공무원	노동자	제조업	(무직 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위법이므로 처벌	66 (46.8)	109 (50.9)	61 (25.6)	86 (38.5)	170 (58.4)	293 (64.5)	46 (43.8)	114 (49.8)	21 (55.3)	41 (48.8)	33 (55.9)
반국가행위 안하 면 관용	61 (43.3)	89 (41.6)	123 (51.7)	50 (34.0)	103 (35.4)	153 (33.7)	53 (50.5)	94 (41.0)	10 (26.3)	39 (46.4)	23 (39.0)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불가	13 (9.2)	15 (7.0)	49 (20.6)	9 (6.1)	16 (5.5)	8 (1.8)	5 (4.8)	20 (8.7)	7 (18.4)	4 (4.8)	3 (5.1)
무 응 답	1 (0.7)	1 (0.5)	5 (2.1)	2 (1.4)	2 (0.7)		1 (1.0)	1 (0.4)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3-2-7>

밀 입 북 처 리

(지역별)

비율 내용	서 울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위법이므로 처벌	236	47.5	194	47.7	303	58.6	304	52.8	3	100
반국가행위 안하 면 관용	212	42.7	182	44.7	178	34.4	226	39.2		
통일에 도움되니 처벌불가	44	8.9	28	6.9	33	6.4	44	7.6		
무 응 답	5	1.0	3	0.7	3	0.6	2	0.3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밀입북자 처리에 대한 계층별 의견중 특징을 추려본다.

① 여자가 남자보다 밀입북자에 대해 처벌을 더 주장(남자 47.8%, 여자 57.8%)하고 관용에 반대적이다. 여자의 보수성과 안정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② 고령층일수록 처벌주장이 많아 20대의 36.9%에 비해 50대는 67.7%이고 젊을수록 관용을 바란다. 젊을수록 그 행위에 대해 소극반대입장임을 반증한다고 보겠다.

③ 대졸자는 뚜렷한 처벌보다는 관용(소극)과 처벌반대(적극)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처벌희망자율에 있어 국졸은 62.5%, 평균 52%인데 대졸자는 36.8%에 불과하다)

④ 생활수준에 따른 의견차는 많지 않으나 중간층이 오히려 관용을 원치않고 처벌을 더 바라며 상층과 하층은 보다 관용적이다.

⑤ 학생이 다른 직종에 비해 처벌에 반대적(평균 52%에 대해 25.6%)이고 관용(평균 39.9%에 대해 51.7%)과 처벌불가(평균 7.45%에 대해 20.6%)에 뚜렷한 의견제시를 하고 있다.

⑥ 대도시일수록 관용쪽에,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는 처벌쪽에 기울고 있다.

3. 第6共和國의 統一努力

제6공화국 출범이후 북방정책에 적극성을 보이기는 했으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6공화국 정부의 통일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 표 3-3-1 >

6 공화국의 통일노력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과거보다 적극적		398	19.90
과거와 별무차이		1,072	53.60
과거보다 소극적		262	13.10
모르겠다		263	13.15
무 응 답		5	0.25
계		2,000	100

< 표 3-3-1 >에 나타난 6 공화국의 통일노력에 대한 평가중 특징을 추려본다.

① 과거와 별 차이 없다는 사람이 과반수인 53.6%에 이른다. 아마도 남북관계에 특별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②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의견 (19.9%)이 더 소극적이라는 의견 (13.1%)보다 약간 높아 정부의 통일노력에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약간 늘었다.

< 표 3-3-2 >

6 공화국의 통일노력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과거보다 적극적	234	19.8	164	20.0				
과거와 별무차이	647	54.9	424	51.8	1	33.3		
과거보다 소극적	171	14.5	90	11.0	1	33.3		
모르겠다	123	10.4	139	17.0	1	33.3		
무응답	4	0.3	1	0.1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3-3-3 >

6 공화국의 통일노력

(연령별)

내 용 \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과거보다 적극적	76	11.3	112	19.5	112	26.1	98	30.7		
과거와 별무차이	399	59.1	326	56.7	207	48.3	139	43.6	1	50.0
과거보다 소극적	130	19.3	76	13.2	34	7.9	21	6.6	1	50.0
모르겠다	69	10.2	61	10.6	74	17.2	59	18.5		
무응답	1	0.1			2	0.5	2	0.6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3-3-4 >

6 공화국의 통일노력

(학력별)

내 용 \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과거보다 적극적	26	21.7	68	20.0	217	23.0	87	14.7		
과거와 별무차이	40	33.3	169	49.7	484	51.2	379	63.9		
과거보다 소극적	18	15.0	33	9.7	121	12.8	89	15.0	1	50.0
모르겠다	36	30.0	69	20.3	122	12.9	35	5.9	1	50.0
무응답			1	0.3	1	0.1	3	0.5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3-3-5 >

6 공화국의 통일노력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과거보다 적극적	1	6.7	45	19.2	246	21.1	78	18.8	26	15.7	2	66.7
과거와 별무차이	8	53.3	125	53.4	646	55.4	215	51.8	78	47.0		
과거보다 소극적	4	26.7	33	14.1	134	11.5	59	14.2	31	18.7	1	33.3
모르겠다	2	13.3	31	13.2	136	11.7	63	15.2	31	18.7		
무응답					5	0.4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3-3-6 >

6 공화국의 통일노력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초중 교원,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 (무직) 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과거보다 적극적	19 (13.5)	47 (22.0)	14 (5.9)	39 (26.5)	65 (22.3)	106 (23.3)	27 (25.7)	48 (21.0)	7 (18.4)	16 (19.0)	10 (16.9)
과거와 별무차이	89 (63.1)	122 (57.0)	148 (62.2)	66 (44.9)	154 (52.9)	223 (49.1)	60 (57.1)	115 (50.2)	19 (50.9)	41 (48.8)	35 (59.3)
과거보다 소극적	20 (14.2)	27 (12.6)	62 (26.1)	16 (10.9)	31 (10.7)	40 (8.8)	9 (8.6)	36 (15.7)	8 (21.1)	9 (10.7)	4 (6.8)
모르겠다	13 (9.2)	17 (7.9)	13 (5.5)	25 (17.0)	40 (13.7)	85 (18.7)	8 (7.6)	30 (13.1)	4 (10.5)	18 (21.4)	10 (16.9)
무응답		1 (0.5)	1 (0.4)	1 (0.7)	1 (0.3)		1 (1.0)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3-3-7 >

6 공화국의 통일노력

(지역별)

비율 내 용	서 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과거보다 적극적	112	22.5	90	22.1	98	19.0	98	17.0		
과거와 별무차이	243	48.9	227	55.8	296	57.3	306	53.1		
과거보다 소극적	84	16.9	49	12.0	55	10.6	73	12.7	1	33.3
모르겠다	57	11.5	40	9.8	67	13.0	97	16.8	2	66.7
무 응 답	1	0.2	1	0.2	1	0.2	2	0.3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보다.

① 남녀별 의견차는 별로 없지만 여성이 6 공화국의 통일노력에 약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다.

② 고령층일수록 6공화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20대의 11.3%에 대해 50대는 30.7%)하는 편이고 젊은층은 부정적인 비율이 높은 편(50대의 6.6%에 대해 20대는 19.3%)이며 전과 같다는 의견도 젊은층에서 많이 나타나 50대의 43.6%에 대해 20대는 59.1%에 이른다. 아마도 젊은층이 정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③ 학력이 높을수록 과거와 비슷하며 평가하는 율이 많고(국졸 33.3% 대졸 63.9%) 저학력층에서는 무관심층이 많다.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다.

⑤ 학생이 6공화국의 통일노력에 긍정적(평균 19.9%에 대해 5.9%)이

지 않고 부정적 (평균 13.1%에 대해 26.1%)이다. 이것은 학생층이 정부에 비판세력임을 나타낸 것이다.

⑥ 지역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다.

4. 統一論議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거니와 그 가운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점과 관련하여 통일논의를 개방할 것인가를 묻은 결과 다음과 같은 반응을 얻었다.

<표 3-4-1> 통 일 논 의 (전체)

내 용	비 율	
	전 명	체 %
완전 개방해야	971	48.55
제한해야	234	11.70
자유민주부정은 제한	768	38.40
무 응 답	27	1.35
계	2000	100

앞의 표에 나타난 특징은

- ① 완전개방하라는 의견이 48.55%로서 가장 많다.
- ② 그러나 조건부 제한(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제한)을 생각하는 사람(38.4%)과 무조건 제한하라는 사람(11.7%)을 합하여 50.1%가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3-4-2 >

통 일 논 의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완전 개방해야	595	50.5	375	45.8	1	33.3		
제한해야	104	8.8	130	15.9				
자유민주부정은 제한	467	39.6	299	36.6	2	66.7		
무 응 답	13	1.1	14	1.7				
계	1,179	100	818	100	100	100		

< 표 3-4-3 >

통 일 논 의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완전 개방해야	422	62.5	267	46.4	177	41.3	104	32.6	1	50.0		
제한해야	48	7.1	67	11.7	60	14.0	59	18.5				
자유민주부정은 제한	197	29.2	236	41.0	183	42.7	151	47.3	1	50.0		
무 응 답	8	1.2	5	0.9	9	2.1	5	1.6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3-4-4 >

통 일 논 의

(학 력 별)

비 율 내 용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완전 개방해야	35	29.2	130	38.2	465	49.2	340	57.3	1	50.0
제한해야	26	21.7	58	17.1	113	12.0	37	6.2		
자유민주부정은 제한	57	47.5	148	43.5	357	37.8	205	34.6	1	50.0
무 응 답	2	1.7	4	1.2	10	1.1	11	1.9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3-4-5 >

통 일 논 의

(생 활수준별)

비 율 내 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완전 개방해야	8	53.3	114	48.7	578	49.5	183	44.1	87	52.4	1	33.3
제한해야	2	13.3	28	12.0	127	10.9	55	13.3	21	12.7	1	33.3
자유민주부정은 제한	5	33.3	90	38.5	445	38.1	172	41.4	55	33.1	1	33.3
무 응 답			2	0.9	17	1.5	5	1.2	3	1.8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3-4-6 >

통 일 논 의

(직업별)

비 율 내 용	전 문 자유직	사 무 관리직	학 생	농 어업	판 매 서비스	주 부	초 중 교원 공무원	기능적 노동자	제조업	기 타 (무직 포함)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완전 개방해야	66 (46.8)	105 (49.1)	176 (73.9)	63 (42.9)	131 (45.0)	182 (40.1)	56 (53.3)	112 (48.9)	20 (52.6)	35 (41.7)	25 (42.4)
제한해야	9 (6.4)	24 (11.2)	11 (4.6)	23 (15.6)	33 (11.3)	78 (17.2)	7 (6.7)	25 (10.9)	5 (13.2)	13 (15.5)	6 (10.2)
자유민주부정은 제한	64 (45.4)	83 (38.8)	49 (20.6)	58 (39.5)	122 (41.9)	190 (41.9)	40 (38.1)	90 (39.3)	13 (34.2)	33 (39.3)	26 (44.1)
무 응 답	2 (1.4)	2 (0.9)	2 (0.8)	3 (2.0)	5 (1.7)	4 (0.9)	2 (1.9)	2 (0.9)		3 (3.6)	2 (3.4)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3-4-7 >

통 일 논 의

(지역별)

비 율 내 용	서 울		적 할시		기 타시		읍 · 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완전 개방해야	251	50.5	195	47.9	251	48.5	273	47.4	1	33.3
제한해야	52	10.5	41	10.1	55	10.6	85	14.8	1	33.3
자유민주부정은 제한	184	37.0	167	41.0	204	39.5	212	36.8	1	33.3
무 응 답	10	2.0	4	1.0	7	1.4	6	1.0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본다.

① 남자가 여자보다 완전개방을 더 주장하는 편(여자 45.8% 대 남자 50.5%)이고 여자는 완전제한하라는 의견비율이 남자보다 높다. 여성의 통일에 대한 신중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젊은층일수록 완전개방을 주장하지만 20대는 더욱 그렇다(50대의 32.6% 대 20대 62.5%) 반대로 노령층일수록 제한(조건 및 무조건)하기를 더 바라고 있다. 젊은층의 현실타파 지향성과 통일열의를 알 수 있다.

③ 고학력일수록 완전개방을(국졸 29.2% 대 대졸 57.3%), 저학력일수록 조건제한 및 무조건제한을 생각하고 있다. 지식인의 통일지향성을 나타낸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다.

⑤ 학생은 다른 직종과는 유별나게 완전개방을 내세운다.(전체평균 48.55% 대 학생 73.9%)

⑥ 지역별 의견차는 거의 없다.

第 4 節 北 韓 觀

1. 北韓知識源

철저하게 분단되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폐쇄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어떤 매체나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1〉 북 한 지 식 원 (전 체)

내 용	비 율		86년 3월	
	전	체	명	%
	명	%	명	%
신문방송	1,454	72.70	7,197	71.97
연구물 책자	236	11.80	1,111	11.11
각종교육	121	6.05		
각종 홍보물	137	6.85		
친지, 친구	42	2.10	233	2.33
무 응 답	10	0.50	37	0.37
통일안보교육			1,222	12.22
계	2,000	100	10,000	100

앞의 <표4-1-1>에 나타난 북한지식원의 특징을 추려본다.

① 대부분(72.7%)의 사람이 신문·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신문·방송에 접하는 기회가 많고

책자를 읽지 않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② 교육(6.05%)과 홍보물접촉(6.85%)을 합한 교육홍보를 통한 지식획득은 12.9%로서 연구물 및 책자를 통한 지식획득과 비슷한 비율에 머무르고 있다.

③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4-1-2 >

북한 지식원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신문방송	837	71.0	614	75.1	3	100		
연구물 책자	152	12.9	84	10.3				
각종교육	69	5.9	52	6.4				
각종 홍보물	90	7.6	47	5.7				
친지, 친구	23	2.0	19	2.3				
무 응 답	8	0.7	2	0.2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4-1-3 >

북한 지식원

(연령별)

비율 내용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신문방송	421	62.4	431	75.0	343	80.0	257	80.6	2	100
연구물책자	123	18.2	66	11.5	29	6.8	18	5.6		
각종교육	55	8.1	30	5.2	21	4.9	15	4.7		
각종홍보물	55	8.1	40	7.0	24	5.6	18	5.6		
친지, 친구	17	2.5	7	1.2	9	2.1	9	2.8		
무응답	4	0.6	1	0.2	3	0.7	2	0.6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4-1-4 >

북한 지식원

(학력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신문방송	101	84.2	268	78.8	714	75.6	369	62.2	2	100
연구물 책자	2	1.7	21	6.2	79	8.4	134	22.6		
각종교육	5	4.2	25	7.4	61	6.5	30	5.1		
각종홍보물	6	5.0	14	4.1	69	7.3	48	8.1		
친지, 친구	5	4.2	10	2.9	18	1.9	9	1.5		
무응답	1	0.8	2	0.6	4	0.4	3	0.5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4-1-5 >

북한 지식원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신문방송	10	66.7	158	67.5	861	73.8	309	74.5	113	68.1	3	100
연구물 책자	1	6.7	37	15.8	137	11.7	44	10.6	17	10.2		
각종교육	1	6.7	20	8.5	66	5.7	21	5.1	13	7.8		
각종 홍보물	3	20.0	16	6.8	73	6.3	34	8.2	11	6.6		
친지, 친구			3	1.3	22	1.9	6	1.4	11	6.6		
무응답					8	0.7	1	0.2	1	0.6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4-1-6 >

북한 지식원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초중 교직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 (무직 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신문방송	100 (70.9)	163 (76.2)	109 (45.8)	118 (80.3)	229 (78.7)	362 (79.7)	84 (80.0)	163 (71.2)	31 (81.6)	57 (67.9)	38 (64.4)
연구물 책자	18 (12.8)	26 (12.1)	72 (30.3)	8 (5.4)	29 (10.0)	35 (7.7)	12 (11.4)	20 (8.7)	2 (5.3)	6 (7.1)	8 (13.6)
각종교육	7 (5.0)	9 (4.2)	21 (8.8)	7 (4.8)	13 (4.5)	27 (5.9)	6 (5.7)	17 (7.4)	3 (7.9)	5 (6.0)	6 (10.2)
각종 홍보물	12 (8.5)	13 (6.1)	26 (10.9)	7 (4.8)	13 (4.5)	21 (4.6)	3 (2.9)	22 (9.6)		13 (15.5)	7 (11.9)
친지, 친구	4 (2.8)	2 (0.9)	9 (3.8)	3 (2.0)	5 (1.7)	9 (2.0)		6 (2.6)	1 (2.6)	3 (3.6)	
무응답		1 (0.5)	1 (0.4)	4 (2.7)	2 (0.7)			1 (0.4)	1 (2.6)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4-1-7>

북한 지식원

(지역별)

내 용	비 율		서 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신문방송	370	74.4	291	71.5	377	72.9	413	71.7	3	100		
연구물책자	52	10.5	53	13.0	60	11.6	71	12.3				
각종교육	32	6.4	20	4.9	28	5.4	41	7.1				
각종홍보물	29	5.8	37	9.1	37	7.2	34	5.9				
친지, 친구	11	2.2	5	1.2	14	2.7	12	2.1				
무응답	3	0.6	1	0.5	1	0.2	5	0.9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본다.

① 남여의 의견차는 별로 없으나 여자는 남자보다 신문방송에 의한 북한소식 접촉비율이 약 2배 더 높고, 남자는 연구물과 책자에 의한 접촉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더 높을 뿐이다.

② 노령층일수록 신문방송에 의한 접촉율이 약간씩 높아 20대의 62.4%에 대해 50대는 80.6%에 이른다. 그 대신 젊은층은 연구물과 책자접촉율이 더 많은 편(50대 5.6% 대 20대 18.2%)이다.

젊은층이 책자접촉(독서)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지식이 높은수록 책자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낮을수록 신문방송의존율이 높다. 저학력층의 독서율이 낮기 때문이다.

④ 중하층이나 중간층이 신문방송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⑤ 학생은 두드러지게 신문방송 의존율이 낮고 책자의존율이 월등히 다른직층에 비해 높다.(평균 책자의존율 11.8%에 대해 학생은 30.3%)

⑥ 지역별 의견차는 거의 없다.

2. 北韓住民生活

북한이 남한보다 잘살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과 소문등은 너무도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남한부정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니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4-2-1> 북 한 주 민 생 활

(전체)

내 용	비 율	
	전 명	체 %
남한보다 좋다	42	2.1
남한과 비슷	180	9.0
남한보다 약간못함	873	43.65
남한보다 훨씬못함	892	44.60
무 응 답	13	0.65
계	2,000	100

북한주민의 생활을 남한과 비교하여 어떻게 보는지 그 특징을 추려 본다.

① 북한주민의 생활이 남한보다 훨씬 못하다(44.6%)라는 의견과 약간 못하다는 의견(43~65%)을 합하면 88.25%나 된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북한의 생활을 남한보다 뒤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② 남한과 북한의 생활이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9%)과 남한보다 더 좋다고 보는 사람(2.1%)도 소수이기는 하나 1할정도에 이른다. 그런데 남한보다 좋다는 사람은 2.1%에 지나지 않고 있어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이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4-2-2 >

북한 주민 생활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남한보다 좋다	27	2.3	15	1.8				
남한과 비슷	98	8.3	82	10.0				
남한보다 약간못함	558	47.3	314	38.4	1	33.3		
남한보다 훨씬못함	487	41.3	403	49.3	2	66.7		
무 응 답	9	0.8	4	0.5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4-2-3 >

북한주민생활

(연령별)

비율 내용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남한보다 좋다	17	2.5	10	1.7	6	1.4	9	2.8		
남한과 비슷	81	12.0	53	9.2	40	9.3	6	1.9		
남한보다 약간못함	363	53.8	253	44.0	154	35.9	102	32.0	1	50.0
남한보다 훨씬못함	209	31.0	258	44.9	226	52.7	198	62.1	1	50.0
무응답	5	0.7	1	0.2	3	0.7	4	1.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4-2-4 >

북한주민생활

(학력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남한보다 좋다	4	3.3	14	4.1	11	1.2	13	2.2		
남한과 비슷	9	7.5	29	8.5	79	8.4	63	10.6		
남한보다 약간못함	33	27.5	115	33.8	403	42.6	321	54.1	1	50.0
남한보다 훨씬못함	73	60.8	180	52.9	448	47.4	190	32.0	1	50.0
무응답	1	0.8	2	0.6	4	0.4	6	1.0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4-2-5 >

북한주민생활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남한보다 좋다	1	6.7	4	1.7	24	2.1	9	2.2	4	2.4		
남한과 비슷	2	13.3	19	8.1	113	9.7	30	7.2	16	9.6		
남한보다 약간못함	4	26.7	103	44.0	509	43.6	181	43.6	73	44.0	3	100
남한보다 훨씬못함	8	53.3	107	45.7	513	44.0	193	46.5	71	42.8		
무응답			1	0.4	8	0.7	2	0.5	2	1.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4-2-6 >

북한주민생활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초중 교원,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남한보다 좋다	3 (2.1)	1 (0.5)	8 (3.4)	1 (0.7)	8 (2.7)	9 (2.0)		8 (3.5)		1 (1.2)	3 (5.1)
남한과 비슷	11 (7.8)	24 (11.2)	36 (15.1)	13 (8.8)	12 (4.1)	46 (10.1)	11 (10.5)	17 (7.4)	2 (5.3)	5 (6.0)	3 (5.1)
남한보다 약간못함	62 (44.0)	109 (50.9)	117 (49.2)	66 (44.9)	132 (45.4)	152 (33.5)	51 (48.6)	107 (46.7)	19 (50.0)	35 (41.7)	23 (39.0)
남한보다 훨씬못함	64 (45.4)	80 (37.4)	75 (31.5)	65 (44.2)	136 (46.7)	247 (54.4)	40 (38.1)	97 (42.4)	16 (42.1)	43 (51.2)	29 (49.2)
무응답	1 (0.7)		2 (0.8)	2 (1.4)	3 (1.0)		3 (2.9)		1 (2.6)		1 (1.7)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4-2-7 >

북한 주민 생활

(지역별)

비율 내용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남한보다 좋다	4	0.8	12	2.9	9	1.7	17	3.0		
남한과 비슷	55	11.1	28	6.9	44	8.5	53	9.2		
남한보다 약간못함	215	43.3	196	48.2	213	41.2	248	43.1	1	33.3
남한보다 훨씬못함	220	44.3	169	41.5	247	47.8	254	44.1	2	66.7
무응답	3	0.6	2	0.5	4	0.8	4	0.7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에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본다.

① 남자는 북한이 남한보다 약간 못산다고 보는 편 (여자 38.4%, 대 47.3%)인데 여자는 훨씬 못산다고 보고 있다. (남자 41.3% 대 여자 49.3%)

② 노령층일 수록 훨씬 못산다는 사람이 많고 (20대 31% 대 50대 62.1%) 젊은 수록 약간 못산다는 사람이 많다. (50대의 32% 대 20대 53.8%) 노령층일수록 북한에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③ 고학력일 수록 약간 못산다는 의견이 많고 (국졸 27.5%, 대졸 54.1%) 저학력자는 훨씬 못산다는 의견이 많다. (대졸 32%, 국졸 60.8%) 지식인이 북한에 대해 호의 또는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거의 없다.

⑤ 학생과 사무직은 남북한이 비슷하다고 보는 율이 타직종에 비해

많은 편이고 학생은 훨씬 못하다는 의견이 타직종보다 적은 편(평균 44.6%에 대해 학생은 31.5%)이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거의 없다.

3. 北韓政治體制 評價

사상적 견고성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반응을 얻었다.

<표 4-3-1> 북 한 정 치 체 제

(전체)

비 율 내 용	전 체	
	명	%
나쁜 체 제	816	40.80
나쁜점 많다	1,047	52.25
좋은점 많다	108	5.40
좋은 체 제	12	0.60
무 응 답	17	0.85
계	2,000	100

<표 4-3-1>에서 보듯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① 「좋은 점이 있으나 나쁜 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인 52.25%에 이른다. 이것은 좋은 점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나쁜 체제라고 적극적인 부정반응을 보인 사람(40.8%)과 나쁜 점이 더 많다는 소극적인 부정반응을 보인 사람(52.35%)을 합하여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93.15%나 된다. 거의 전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③ 극소수(0.6%)는 북한정치체제를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소수(5.4%)는 「나쁜 점이 있으나 좋은 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상적으로 크게 우려할만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4-3-2 >

북한 정치 체제

(성별)

비율 내 용	남		여		무응답	
	명	%	명	%	명	%
나쁜 체제	474	40.2	340	41.6	2	66.7
나쁜점 많다	611	51.8	435	53.2	1	33.3
좋은점 많다	73	6.2	35	4.3		
좋은 체제	9	0.8	3	0.4		
무응답	12	1.0	5	0.6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4-3-3 >

북한 정치 체제

(연령별)

비율 내용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나쁜 체제	169	25.0	217	37.7	224	52.2	205	64.3	1	50.0
나쁜점 많다	430	63.7	319	55.5	190	44.3	107	33.5	1	50.0
좋은점 많다	60	8.9	32	5.6	10	2.3	6	1.9		
좋은 체제	5	0.7	4	0.7	2	0.5	1	0.3		
무응답	11	1.6	3	0.5	3	0.7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4-3-4 >

북한 정치 체제

(학력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나쁜 체제	80	66.7	176	51.8	392	41.5	167	28.2	1	50.0
나쁜점 많다	36	30.0	143	42.1	514	54.4	353	59.5	1	50.0
좋은점 많다	4	3.3	17	5.0	30	3.2	57	9.6		
좋은 체제			2	0.6	5	0.5	5	0.8		
무응답			2	0.6	4	0.4	11	1.9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4-3-5>

북한 정치 체제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나쁜 체제	5	33.3	94	40.2	458	39.2	185	44.6	74	44.6		
나쁜점 많다	7	46.7	121	51.7	635	54.4	208	50.1	73	44.0	3	100
좋은점 많다	3	20.0	18	7.7	55	4.7	16	3.9	16	9.6		
좋은 체제			1	0.4	8	0.7	2	0.5	1	0.6		
무응답					11	0.9	4	1.0	2	1.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4-3-6>

북한 정치 체제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초중 교원,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나쁜 체제	59 (41.8)	66 (30.8)	50 (21.0)	72 (49.0)	124 (42.6)	223 (49.1)	40 (38.1)	99 (43.2)	18 (47.4)	41 (48.8)	24 (40.7)
나쁜점 많다	72 (51.1)	135 (63.1)	143 (60.1)	70 (47.6)	147 (50.5)	216 (47.6)	63 (60.0)	118 (51.5)	14 (36.8)	39 (46.4)	30 (50.8)
좋은점 많다	9 (6.4)	11 (5.1)	35 (14.7)	4 (2.7)	17 (5.8)	12 (2.6)	2 (1.9)	7 (3.1)	5 (13.2)	4 (4.8)	2 (3.4)
좋은 체제			4 (1.7)		1 (0.3)	2 (0.4)		3 (1.3)			2 (3.4)
무응답	1 (0.7)	2 (0.9)	6 (2.5)	1 (0.7)	2 (0.7)	1 (0.2)		2 (0.9)	1 (2.6)		7 (1.7)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4-3-7 >

북한정치체제

(지역별)

내 용	비 율		서 율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나쁜 체제	176	35.4	172	42.3	225	43.5	242	42.0	1	33.3		
나쁜점 많다	290	58.4	206	50.6	259	50.1	290	50.3	2	66.7		
좋은점 많다	24	4.8	22	5.4	26	5.0	36	6.3				
좋은 체제	1	0.2	4	1.0	3	0.6	4	0.7				
무응답	6	1.2	3	0.7	4	0.8	4	0.7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본다.

- ① 북한정치 체제에 대한 남녀별 평가의 차가 거의 없다.
- ② 고령일수록 북한을 적극적으로 나쁜 체제로 보는 경향(20대 25% 대 50대 64.3%)이 있고 소극적 부정은 젊을 수록 많아 50대의 33.5%에 대해 20대는 63.7%에 이른다.
- ③ 고학력일 수록 소극부정의 경향(국졸 30% 대 대졸 59.5%)이 있고 저학력일 수록 적극부정(대졸 28.2% 대 국졸 66.7%)이다.
-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많지 않으나 하층만은 북한에 좋은 점이 많다는 사람도 꽤 있다.
- ⑤ 학생은 적극부정율이 타직종보다 훨씬 적고(평균 40.8% 대 21%) 긍정율은 높은 편(평균 6% 대 16.4%)이다. 학생의 의식이 뚜렷이 다

를 알 수 있다.

⑥ 지역차는 많지 않으나 서울시민은 북한에 적극적인 부정보다는 소극적인 부정의 율이 다른 지역민보다 많다.

4. 北韓社會觀

북한사회에 대한 선호도를 그 곳에 살 뜻이 있는가 또는 살만한 곳인가라는 설문을 가지고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4-1> 북 한 사 회 (전체)

내 용	비 율	
	전 명	체 %
자유없는 못살 곳	973	48.65
그곳에 안살겠다	906	45.30
살만한 곳	87	4.35
그곳에 살고싶다	15	0.75
무 응 답	19	0.95
계	2,000	100

<표4-4-1>에서 보듯이 북한사회에 대한 선호도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과 자유가 없는 못살 곳」이 라고 본 사람(48.65%)과 「일부 장점이 있으나 거기서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45.3%)등 적극적인 부정반응자가 93.95%나 된다. 거의 대부분이 북한사회를 못살 곳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② 「의식주와 취업이 보장되어 살만한 곳」이라고 본 사람은 극소수인 4.35%에 불과하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적극적인 뜻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 0.75%에 불과하다.

앞에서 보듯이 의식주등 평등보다는 인권과 자유등을 더 중요시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4-4-2>

북한 사회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자유없는 못살 곳	541	45.9	430	52.6	2	66.7		
그곳에 안살겠다	548	46.5	357	43.6	1	33.3		
살만한 곳	62	5.3	25	3.1				
그곳에 살고싶다	14	1.2	1	0.1				
무 응 답	14	1.2	5	0.6				
계	1,179	100	818	100	100	100		

<표 4-4-3>

북한 사회

(연령별)

내 용	비 율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자유없는 못살 곳	231	34.2	260	45.2	257	59.9	224	70.2	1	50.0		
그곳에 안살겠다	370	54.8	283	49.2	165	38.5	87	27.3	1	50.0		
살만한 곳	55	8.1	23	4.0	4	0.9	5	1.6				
그곳에 살고싶다	10	1.5	5	0.9								
무 응 답	9	1.3	4	0.7	3	0.7	3	0.9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4-4-4 >

북한 사회

(학력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자유없는 못살 곳	82	68.3	210	61.8	488	51.6	192	32.4	1	50.0
그곳에 안살겠다	34	28.3	116	34.1	419	44.3	336	56.7	1	50.0
살만한 곳	1	0.8	10	2.9	28	3.0	48	8.1		
그곳에 살고싶다	1	0.8			4	0.4	10	1.7		
무응답	2	1.7	4	1.2	6	0.6	7	1.2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4-4-5 >

북한 사회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자유없는 못살 곳	5	33.3	122	52.1	560	48.0	210	50.6	76	45.8		
그곳에 안살겠다	9	60.0	98	41.9	542	46.4	182	43.9	72	43.4	3	100
살만한 곳	1	6.7	9	3.8	48	4.1	16	3.9	13	7.8		
그곳에 살고싶다			3	1.3	7	0.6	2	0.5	3	1.8		
무응답			2	0.9	10	0.9	5	1.2	2	1.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4-4-6 >

북한 사회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초·중 교원,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자유없는 못살 곳	57 (40.4)	94 (43.9)	56 (23.5)	87 (59.2)	143 (49.1)	277 (61.0)	55 (52.4)	108 (47.2)	18 (47.4)	47 (56.0)	31 (52.5)
그곳에 안살겠다	77 (54.6)	111 (51.9)	136 (57.1)	56 (38.1)	132 (45.4)	170 (37.4)	46 (43.8)	109 (47.6)	14 (36.8)	33 (39.3)	22 (37.3)
살만한 곳	3 (2.1)	7 (3.3)	36 (15.1)	3 (2.0)	13 (4.5)	5 (1.1)	3 (2.9)	7 (3.1)	3 (7.9)	3 (3.6)	4 (6.8)
그곳에 살고싶다	2 (1.4)	1 (0.5)	6 (2.5)		1 (0.3)		1 (1.0)	2 (0.9)	1 (2.6)		1 (1.7)
무응답	2 (1.4)	1 (0.5)	4 (1.7)	1 (0.7)	2 (0.7)	2 (0.4)		3 (1.3)	2 (5.3)	1 (1.2)	1 (1.7)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4-4-7 >

북한 사회

(지역별)

비율 내용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자유없는 못살 곳	221	44.5	199	48.9	258	49.9	293	50.9	2	66.7
그곳에 안살겠다	252	50.7	180	44.2	228	44.1	245	42.5	1	33.3
살만한 곳	19	3.8	18	4.4	21	4.1	29	5.0		
그곳에 살고싶다	2	0.4	5	1.2	6	1.2	2	0.3		
무응답	3	0.6	5	1.2	4	0.8	7	1.2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본다.

① 여자가 북한사회에 더 부정적으로 평가(못살 곳으로 보는 율이 남자 45.9%대 여자 52.6%)하고 있다.

② 노령층일수록 못살 곳으로 보는 율이 높다.(20대 34.2%대 50대 70.2%)

③ 저학력층일수록 못살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대졸 32.4%대 국졸 68.3%)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많지 않다.

⑤ 학생은 자유없는 못살 곳으로 보는 율이 타직종에 비해 훨씬 적어 전체평균 48.65%에 대해 23.5%밖에 안된다. 학생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지않는 환상적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⑥ 지역별의견 차는 적으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북한을 못살 곳으로 보는 편이다.

5. 北韓同胞 對面態度

같은 동포이면서도 대치상태에 오래 있었던 남북한 주민이기에 대면했을 때에 취할 태도가 궁금하다. 그런 뜻에서 「지금당장 북한동포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겠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반응을 얻었다.

<표 4-5-1>

북한 동포 대면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적극 환대		795	39.75
담담히 대하겠다		495	24.75
경계심 갖겠다		240	12.00
대화 피하겠다		28	1.40
그때가 봐야		437	21.85
무응답		5	0.25
계		2,000	100

<표4-5-1>에 나타난 결과의 특징을 추려 본다.

① 동포로서 적극 환대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아 39.75%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② 그러나 경계심을 갖겠다는 사람이 12%에 이른다. 이것은 아직도 북한의 공작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때가 보아야 안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심리의 표현일 것이다.

③ 대화를 피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람은 극소수(1.4%)에 불과하고 중립적인 사람(담담히 대하겠다)이 상당수(24.75%)에 이른다. 동포애와 남북간의 냉랭한 현실이 이러한 중립적 태도를 많이 갖게 하고 있다고 본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4-5-2>

북한 등포대면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적극환대	543	46.1	251	30.7	1	33.3		
담담히 대화하겠다	282	23.9	213	26.1				
경계심 갖겠다	107	9.1	132	16.1	1	33.3		
대화 피하겠다	15	1.3	13	1.6				
그때가 봐야	229	19.4	207	25.3	1	33.3		
무응답	3	0.3	2	0.2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4-5-3>

북한 등포대면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적극환대	284	42.1	233	40.5	158	36.8	120	37.6				
담담히 대화하겠다	173	25.6	163	28.3	96	22.4	63	19.7				
경계심 갖겠다	53	7.9	60	10.4	65	15.2	62	19.4				
대화 피하겠다	10	1.5	5	0.9	5	1.2	8	2.5				
그때가 봐야	152	22.5	114	19.8	103	24.0	66	20.7	2	100		
무응답	3	0.4			2	0.5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4-5-4>

북한동포대면

(학력별)

내 용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적 극 환 대	41	34.2	117	34.4	363	38.4	274	46.2				
담담히 대화하겠다	15	12.5	61	17.9	253	26.8	166	28.0				
경계심 갖겠다	28	23.3	53	15.6	106	11.2	52	8.8	1	50.0		
대화 피하겠다	2	1.7	10	2.9	14	1.5	2	0.3				
그때가 봐야	34	28.3	97	28.5	208	22.0	97	16.4	1	50.0		
무 응 답			2	0.6	1	0.1	2	0.3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4-5-5>

북한동포대면

(생활수준별)

내 용	비 율		상		상 중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적 극 환 대	6	40.0	97	41.5	443	38.0	180	43.4	68	41.0	1	33.3		
담담히 대화하겠다	4	26.7	55	23.5	318	27.2	86	20.7	31	18.7	1	33.3		
경계심 갖겠다	3	20.0	31	13.2	134	11.5	49	11.8	23	13.9				
대화 피하겠다			2	0.9	14	1.2	9	2.2	3	1.8				
그때가 봐야	2	13.3	49	20.9	254	21.8	90	21.7	41	24.7	1	33.3		
무 응 답					4	0.3	1	0.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4-5-6>

북한동포대면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초·중 고·원 공부회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적극환대	62 (44.0)	80 (37.4)	112 (47.1)	60 (40.8)	116 (39.9)	149 (32.8)	51 (48.6)	100 (43.7)	19 (50.0)	27 (32.1)	19 (32.2)
담담히 대화하겠다	35 (24.8)	66 (30.8)	60 (25.2)	25 (17.0)	73 (25.1)	102 (22.5)	25 (23.8)	63 (27.5)	7 (18.4)	18 (21.4)	21 (35.6)
경계심 갖겠다	21 (14.9)	18 (8.4)	19 (8.0)	24 (16.3)	27 (9.3)	85 (18.7)	6 (5.7)	13 (5.7)	7 (18.4)	10 (11.9)	10 (16.9)
대화 피하겠다	1 (0.7)	3 (1.4)	2 (0.8)	1 (0.7)	3 (1.0)	7 (1.5)		8 (3.5)		2 (2.4)	1 (1.7)
그때가봐야	22 (15.6)	46 (21.5)	44 (18.5)	37 (25.2)	71 (24.4)	110 (24.2)	23 (21.9)	44 (19.2)	5 (13.2)	27 (32.1)	8 (13.6)
무응답		1 (0.5)	1 (0.4)		1 (0.3)	1 (0.2)		1 (0.4)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4-5-7>

북한동포대면

(지역별)

비율 내용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적극환대	227	45.7	130	31.9	195	37.7	243	42.2		
담담히 대화하겠다	103	20.7	123	30.2	142	27.5	126	21.9	1	33.3
경계심 갖겠다	52	10.5	54	13.3	70	13.5	64	11.1		
대화 피하겠다	6	1.2	2	0.5	5	1.0	15	2.6		
그때가봐야	108	21.7	97	23.8	103	19.9	127	22.0	2	66.7
무응답	1	0.2	1	0.2	2	0.4	1	0.2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여자는 남자보다 유보적이고 남자는 여자보다 북한동포를 환대(덜 경계)하겠다는 생각(여자 30.7%대 남자 46.1%)이다.

② 연령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없으나 저학력자는 경계심이 더 강하고 대졸자는 환대하겠다는 비율이 많은 편이다.

③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거의 없는 편이고 공무원, 교원, 학생들이 북한동포를 환대하겠다는 반응을 많이 나타내는 편이다.(평균 39.75%대 학생 47.1%, 교원공무원 48.6%)

④ 서울시민이 환대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직할시민 31.9%에 비해 45.7%에 이른다.

第 5 節 安 保 觀

1. 戰爭可能性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달성 문제이다. 남북간에는 아직 적도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느냐」를 물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1>

전 쟁 가 능 성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86년 3월	
			명	%	명	%
매우 높다			192	9.60	3,826	38.26
약간 있다			818	40.90	3,813	38.13
가능성 희박			630	31.50	1,843	18.43
전혀 없다			113	5.65	492	4.92
모르겠다			237	11.85		
무응답			10	0.50	26	0.26
계			2,000	100	10,000	100

<표5-1-1>에 나타난 결과의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전쟁위험이 있다는 의견(매우 높다 9.6%와 약간 있다 40.9%)이 약 반수(50.5%)이고 없다는 의견(전혀 없다 5.65%와 희박하다 31.5%)이 37.15%로서 어느 쪽도 지배적인 의견이 아니다.

② 86년 조사에서는 전쟁위험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38.26%나 되어 약간 있다는 것(38.13%)을 합하여 전쟁가능성에 76.39%나 동조했는데 이번에는 매우 높다는 의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것은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안보에 대한 관심보다 대내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안보교육을 별로 실시하지 않은 것과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을 북한이 방해 할 것이라는 도발위험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기우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③ 그것과 관련하여 전쟁위험이 없다는 의견도 86년의 23.35%(희박 18.43%와 전무 4.92%)에서 이번에는 37.15%로 크게 늘었다. 남침경각심의 해이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5-1-2>

전 쟁 가 능 성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매우 높다	122	10.3	70	8.6				
약간 있다	471	39.9	345	42.2	2	66.7		
가능성 희박	391	33.2	239	29.2				
전혀 없다	81	6.9	32	3.9				
모르겠다	107	9.1	129	15.8	1	33.3		
무응답	7	0.6	3	0.4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5-1-3>

전 쟁 가 능 성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매우 높다	53	7.9	40	7.0	52	12.1	47	14.7				
약간 있다	260	38.5	242	42.1	186	43.4	129	40.4	1	50.0		
가능성 희박	255	37.8	196	34.1	112	26.1	67	21.0				
전혀 없다	48	7.1	31	5.4	13	3.0	20	6.3	1	50.0		
모르겠다	56	8.3	65	11.3	62	14.5	54	16.9				
무응답	3	0.4	1	0.2	4	0.9	2	0.6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5-1-4 >

전 쟁 가 능 성

(학 력 별)

내용	비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 재 이 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매우 높다	15	12.5	42	12.4	102	10.8	33	5.6				
약간 있다	45	37.5	130	38.2	417	44.1	224	37.8	2	100		
가능성 희박	25	20.8	90	26.5	263	27.8	252	42.5				
전혀 없다	5	4.2	19	5.6	49	5.2	40	6.7				
모르겠다	29	24.2	56	16.5	112	11.9	40	6.7				
무응답	1	0.8	3	0.9	2	0.2	4	0.7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5-1-5 >

전 쟁 가 능 성

(생 활 수 준 별)

내용	비율		상		중 상		중		통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매우 높다	3	20.0	25	10.7	105	9.0	46	11.1	13	7.8				
약간 있다	5	33.3	96	41.0	465	39.8	192	46.3	59	35.9	1	33.3		
가능성 희박	3	20.0	71	30.3	399	34.2	106	25.5	50	30.1	1	33.3		
전혀 없다	1	6.7	14	6.0	56	4.8	23	5.5	19	11.4				
모르겠다	3	20.0	26	11.1	136	11.7	46	11.1	25	15.1	1	33.3		
무응답			2	0.9	6	0.5	2	0.5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5-1-6>

전 쟁 가 능 성

(직업별)

비율 내용	전 문 자유직	사 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 매 서비스	주부	초·중 교원, 공무원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매우 높다	12 (8.5)	17 (7.9)	18 (7.6)	20 (13.6)	23 (7.9)	40 (8.8)	15 (14.3)	27 (11.8)	3 (7.9)	13 (15.5)	4 (6.8)
약간 있다	64 (45.4)	110 (51.4)	76 (31.9)	54 (36.7)	121 (41.6)	185 (40.7)	38 (36.2)	98 (42.8)	14 (36.8)	32 (38.1)	26 (44.1)
가능성 희박	42 (29.8)	66 (30.8)	104 (43.7)	42 (28.6)	96 (33.0)	128 (28.2)	34 (32.4)	67 (29.3)	11 (28.9)	22 (26.2)	18 (30.5)
전혀 없다	6 (4.3)	6 (2.8)	20 (8.4)	12 (8.2)	16 (5.5)	20 (4.4)	9 (8.6)	15 (6.6)	3 (7.9)	4 (4.8)	2 (3.4)
모르겠다	15 (10.0)	14 (6.5)	20 (8.4)	18 (12.2)	34 (11.7)	79 (17.4)	7 (6.7)	21 (9.2)	7 (18.4)	13 (15.5)	9 (15.3)
무응답	2 (1.4)	1 (0.5)		1 (0.7)	1 (0.3)	2 (0.4)	2 (1.9)	1 (0.4)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5-1-7>

전 쟁 가 능 성

(지역별)

비율 내용	서 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매우 높다	46	9.3	41	10.1	48	9.3	57	9.9		
약간 있다	204	41.0	168	41.3	219	42.4	224	38.9	3	100
가능성 희박	152	30.6	130	31.9	159	30.8	189	32.8		
전혀 없다	20	4.0	24	5.9	25	4.8	44	7.6		
모르겠다	72	14.5	44	10.8	62	12.0	59	10.2		
무응답	3	0.6			4	0.8	3	0.5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여자가 전쟁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고 남자는 가능성이 없다는 편(여자 32.1% 대 남자 40.1%)이다. 여자가 불안감을 더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젊은 층일 수록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율이 많아 50대의 27.3%에 대해 20대는 34.9%에 이른다. 40대와 50대가 비슷하고 20대와 30대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젊은 층과 노장년 층의 뚜렷한 의견차인 것이다.

③ 고학력일 수록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편인데 특히 대졸의 경우는 국졸의 25%에 대해 49.2%나 된다. 지식인(학생 포함)이 전쟁에 대하여 안심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여 안보경각심이 약하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④ 생활수준에 따른 의견차는 거의 없으나 하층민이 전쟁위험이 없다고 보는 비율이 약간 높은 편(평균 37.15% 대 41.5%)이다.

⑤ 학생은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평균 37.15%에 대해 52.1%나 된다. 안보에 대해서는 학생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거의 없으나 농어촌에서 낙관적인 편이다.

2. 安保威脅要素

안보위협은 바깥(북)으로 부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안보위협의 대내적 요소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위협요소인가를 물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2-1>

안 보 위 협 요 소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좌 경 사 상 혼 란		764	38.20
여 소 야 대 정 국		237	11.85
치 안 약 화 혼 란		665	33.75
노 사분규 · 경 제 난		171	8.55
모 르 겠 다		124	6.20
무 응 답		39	1.95
계		2,000	100

안보위협 의 대내적 요소의 특징을 추려 본다.

① 많은 사람이 「좌경이념의 확산과 사상적 혼란」(38.2%) 및 민생치안 약화와 사회혼란(33.75%)를 들고 있어 합해서 71.95%에 이른다. 이 두가지는 서로 연관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좌경적 세력이 사회혼란을 일으킨다는 주장까지 있는 것이다. 이런 반응은 사회안정과 자유민주체제수호를 바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② 여소야대로 인한 정치불안이나 경제난과 같은 비교적 체제내적인 면이 강한 요인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경향은 적은 편(정치불안 11.85%, 노사분규와 경제성장 둔화 8.55%)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5-2-2>

안 보 위 협 요 소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좌 경 사 상 혼 란	461	39.1	301	36.8	2	66.7		
여 소 야 대 정 국	128	10.9	109	13.3				
치 안 약 화 혼 란	399	33.8	265	32.4	1	33.3		
노 사 분 규 · 경 제 난	95	8.1	76	9.3				
모 르 겠 다	67	5.7	57	7.0				
무 응 답	29	2.5	10	1.2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5-2-3>

안 보 위 협 요 소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좌 경 사 상 혼 란	210	31.1	224	39.0	182	42.4	147	46.1	1	50.0		
여 소 야 대 정 국	83	12.3	67	11.7	51	11.9	36	11.3				
치 안 약 화 혼 란	250	37.0	199	34.6	132	30.8	83	26.0	1	50.0		
노 사 분 규 · 경 제 난	59	8.7	40	7.0	40	9.3	32	10.0				
모 르 겠 다	47	7.0	39	6.8	21	4.9	17	5.3				
무 응 답	26	3.9	6	1.0	3	0.7	4	1.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5-2-4>

안 보 위 협 요 소

(학력별)

내용	비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좌경 사상 혼란	48	40.0	130	38.2	389	41.2	196	33.1	1	50.0		
여소야대 정국	10	8.3	53	15.6	117	12.4	57	9.6				
치안약화 혼란	36	30.0	83	24.4	306	32.4	239	40.3	1	50.0		
노사분규·경제난	15	12.5	37	10.9	78	8.3	41	6.9				
모 르 겠 다	9	7.5	31	9.1	47	5.0	37	6.2				
무 응 답	2	1.7	6	1.8	8	0.8	23	3.9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5-2-5>

안 보 위 협 요 소

(생활수준별)

내용	비율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좌경 사상 혼란	6	40.0	78	33.3	477	40.9	160	38.6	43	25.9				
여소야대 정국	3	20.0	39	16.7	136	11.7	39	9.4	20	12.0				
치안약화 혼란	4	26.7	78	33.3	367	31.4	151	36.4	62	37.3	3	100		
노사분규·경제난	2	13.3	17	7.3	105	9.0	33	8.0	14	8.4				
모 르 겠 다			16	6.8	60	5.1	26	6.3	22	13.3				
무 응 답			6	2.6	22	1.9	6	1.4	5	3.0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5-2-6>

안 보 위 협 요 소

(직업별)

비율 내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 업	판 매	주 부	초 중 교 원, 공 부 원	기 능 직 노 동 자	제 조 업	기 타 (무 직 포 함)	무 응 답
	자 유 직 명(%)	관 리 직 명(%)	명(%)	명(%)	서 비 스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좌 경 사 상 혼 란	57 (40.4)	93 (43.5)	55 (23.1)	70 (47.6)	112 (38.5)	172 (37.9)	49 (46.7)	90 (39.3)	12 (31.6)	25 (29.8)	29 (49.2)
여 소 야 대 정 국	12 (8.5)	17 (7.9)	30 (12.6)	18 (12.2)	41 (14.1)	56 (12.3)	4 (3.8)	27 (11.8)	5 (13.2)	18 (21.4)	9 (15.3)
치 안 약 화 혼 란	54 (38.3)	71 (33.2)	87 (36.6)	30 (20.4)	103 (35.4)	144 (31.7)	41 (39.0)	80 (34.9)	14 (36.8)	25 (29.8)	16 (27.1)
노 사 분 규 · 경 제 난	11 (7.8)	21 (9.8)	23 (9.7)	15 (10.2)	18 (6.2)	42 (9.3)	7 (6.7)	16 (7.0)	4 (10.5)	10 (11.9)	4 (6.8)
모 르 겠 다	5 (3.5)	10 (4.7)	25 (10.5)	10 (6.8)	13 (4.5)	38 (8.4)	3 (2.9)	13 (5.7)	1 (2.6)	6 (7.1)	
무 응 답	2 (1.4)	2 (0.9)	18 (7.6)	4 (2.7)	4 (1.4)	2 (0.4)	1 (1.0)	3 (1.3)	2 (5.3)		1 (1.7)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5-2-7>

안 보 위 협 요 소

(지역별)

비율 내용	서 울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좌 경 사 상 혼 란	164	33.0	181	44.5	228	44.1	191	33.2		
여 소 야 대 정 국	55	11.1	48	11.8	54	10.4	79	13.7	1	33.3
치 안 약 화 혼 란	187	37.6	127	31.2	159	30.8	190	33.0	2	66.7
노 사 분 규 · 경 제 난	53	10.7	29	7.1	33	6.4	56	9.7		
모 르 겠 다	26	5.2	10	2.5	32	6.2	56	9.7		
무 응 답	12	2.4	12	2.9	11	2.1	4	0.7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안보위협요소에 대한 남녀간의 의견차는 거의 없다.

② 노령일 수록 좌경사상혼란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편(20대 31.1% 대 50대 46.1%)이고 젊은 수록 치안악화를 드는 편(50대 26% 대 20대 37%)이다. 젊은 층에서 좌경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은 그것을 위험시하는 것이다.

③ 학력에 따르는 의견차는 거의 없으나 하층민은 좌경사상 혼란을 훨씬 덜 문제시(25.9%)하고 있다.

④ 학생은 좌경사상을 문제시하는 사람이 타직종보다 훨씬 적어 평균의 38.2%에 대해 23.1%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층에서 좌경사상이 만연되고 있음을 간접으로 나타낸 것이다.

⑤ 서울과 읍면민이 좌경사상에 대해 비교적 덜 문제시하고 있다.

3. 美軍撤收時期

최근에 일부 재야인사 및 젊은 학생층에서 미군철폐를 주장하고 반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철폐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내 용	비 율		86년 3 월	
	전	체	명	%
무력남침 포기시	352	17.60	상당기간추둔	
방위력 충분시	1,126	56.30	7,753	77.53
지금부터 점진철수	436	21.80		
당장 철수	84	4.20	971	9.71
무 응 답	2	0.10	69	0.69
아무래도 무방			1,207	12.07
계	2,000	100	10,000	100

<표 5-3-1>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과반수의 사람이 (56.3%) 자체방위력이 충분할 때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방위력」의 보유라는 조건이 언제 이룩될지는 모르나 그것을 조건으로 철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② 북한의 무력통일 포기시 (17.6%)나 자체방위력이 충분할 때 (56.3%)라는 전제조건하의 철군을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다수 (73.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전쟁억제를 위한 미군추둔을 강하게 바라고 있음을 반영한다.

③ 그 73.9%는 86년의 77.53%보다는 약간 줄어 든 것이지만 당장 철수하라는 주장을 86년의 9.71%에서 금년에는 4.2%로 줄고 지금부터 점진적 철수를 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1.8%)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5-3-2> 미 군 철 수 시 기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무력남침 포기시	190	16.1	161	19.7	1	33.3		
방위력 충분시	640	54.3	484	59.2	2	66.7		
지금부터 점진철수	290	24.6	146	17.8				
당 장 철 수	57	4.8	27	3.3				
무 응 답	2	0.2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5-3-3> 미 군 철 수 시 기

(연령별)

내 용	비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무력남침 포기시	51	7.6	87	15.1	100	23.3	114	35.7				
방위력 충분시	341	50.5	330	57.4	275	64.1	178	55.8	2	100		
지금부터 점진철수	225	33.3	138	24.0	50	11.7	23	7.2				
당 장 철 수	56	8.3	20	3.5	4	0.9	4	1.3				
무 응 답	2	0.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5-3-4>

미 군 철 수 시 기

(학력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 재 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무력남침 포기시	43	35.8	105	30.9	164	17.4	40	6.7		
방위력 충분시	58	48.3	178	52.4	586	62.0	302	50.9	2	100
지금부터 점진철수	15	12.5	46	13.5	176	18.6	199	33.6		
당장철수	4	3.3	10	2.9	19	2.0	51	8.6		
무 응 답			1	0.3			1	0.2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5-3-5>

미 군 철 수 시 기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 상		상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무력남침 포기시	2	13.3	35	15.0	202	17.3	82	19.8	30	18.1	1	33.3
방위력 충분시	9	60.0	138	59.0	674	57.8	225	54.2	78	47.0	2	66.7
지금부터 점진철수	3	20.0	55	23.5	251	21.5	82	19.8	45	27.1		
당장철수	1	6.7	6	2.6	39	3.3	25	6.0	13	7.8		
무 응 답					1	0.1	1	0.2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5-3-6>

미 군 철 수 시 기

(직업별)

비율 내용	전 문	사 무	학 생	농 어업	판 매	주 부	초 중	가 능직	제 조업	기 타	무응답
	자유직	관리직			서비스		교원, 공무원	노동자		(무직 포함)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무력남침 포기시	26 (18.4)	25 (11.7)	11 (4.6)	43 (29.3)	45 (15.5)	109 (24.0)	20 (19.0)	34 (14.8)	8 (21.1)	20 (23.8)	11 (18.6)
방위력 충분시	77 (54.6)	129 (60.3)	95 (39.9)	81 (55.1)	187 (64.3)	275 (60.6)	55 (52.4)	131 (57.2)	17 (44.7)	43 (51.2)	36 (61.0)
지금부터 점진 철수	36 (25.5)	54 (25.2)	97 (40.8)	21 (14.3)	50 (17.2)	61 (13.4)	28 (26.7)	51 (22.3)	10 (26.3)	16 (19.0)	12 (20.3)
당 장 철 수	2 (1.4)	5 (2.3)	35 (14.7)	2 (1.4)	9 (3.1)	9 (2.0)	2 (1.9)	12 (5.2)	3 (7.9)	5 (6.0)	
무 응 답		1 (0.5)						1 (0.4)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5-3-7>

미 군 철 수 시 기

(지역별)

비율 내용	서 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무력남침 포기시	95	19.1	72	17.7	81	15.7	102	17.7	2	66.7
방위력 충분시	298	60.0	220	54.1	308	59.6	299	51.9	1	33.3
지금부터 점진 철수	91	18.3	93	22.9	110	21.3	142	24.7		
당 장 철 수	13	2.6	22	5.4	16	3.1	33	5.7		
무 응 답					2	0.4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여자가 남자보다 미군철폐에 더 부정적(남자 70.4% 대 여자 78.9%)이다. 여성이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② 젊을 수록 미군철폐를 주장하는 편이어서 50대의 8.5%에 대해 20대는 41.6%나 된다. 젊은 층에서 반미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지식인(대재이상)이 철군을 훨씬 더 요구(국졸 15.8%에 대해 42.2%)하고 있다.

④ 하층일 수록 철군을 요구하는 사람이 약간 더 많은 편이다.

⑤ 학생이 타직종보다 뚜렷이 미군철폐를 주장(55.5%)하고 있다.(평균 26%) 최근 학생이 계속 철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별로 없다.

第 6 節 北方政策과 統一課題

1. 北方政策과 統一

6 공화국에 이르러 가장 두드러진 대외관계의 변화는 공산권에 대한 적극외교와 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공산권외교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1-1〉 북방정책과 평화와 통일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크	443	22.15
다	1,089	54.45
별	408	20.40
오	53	2.65
무	7	0.35
계	2,000	100

〈표6-1-1〉에 나타난 북방정책의 영향중 특징적인 것을 추려 본다.

① 북방정책이 평화와 통일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 과반수에 이른다. 북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라고 본다.

② 평화와 통일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람 (22.15%)과 다소 도움이 된다는 사람을 합하여 북방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다수인 76.6%에 이르고 있다.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보거나 (20.4%) 오히려 해롭다고 보는 사람 (2.65%)등 부정적인 의견은 23.05% 정도이다. 그러나 이 의견에 유념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6-1-2 >

북방정책과 평화와 통일

(성별)

내 용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크 게 기 여	288	24.4	155	18.9		
다 소 도 움	632	53.6	454	55.5	3	100
별 로 도 움 안 됨	220	18.7	188	23.0		
오 히 려 해 롭 다	35	3.0	18	2.2		
무 응 답	4	0.3	3	0.4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6-1-3 >

북방정책과 평화와 통일

(연령별)

내 용 \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크 게 기 여	129	19.1	121	21.0	111	25.9	82	25.7		
다 소 도 움	372	55.1	323	56.2	227	52.9	116	52.0	1	50.0
별 로 도 움 안 됨	153	22.7	113	19.7	74	17.2	67	21.0	1	50.0
오 히 려 해 롭 다	18	2.7	15	2.6	16	3.7	4	1.3		
무 응 답	3	0.4	3	0.5	1	0.2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6-1-4 >

북방정책과 평화와 통일

(학력별)

내 용 \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 재 이 상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크 게 기 여	33	27.5	78	22.9	205	21.7	127	21.4		
다 소 도 움	62	51.7	175	51.5	518	54.8	332	56.0	2	100
별 로 도 움 안 됨	21	17.5	69	20.3	204	21.6	114	19.2		
오 히 려 해 롭 다	4	3.3	16	4.7	14	1.5	19	3.2		
무 응 답			2	0.6	4	0.4	1	0.2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6-1-5 >

북방정책과 평화와 통일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크 게 기 여	3	20.0	55	23.5	261	22.4	95	22.9	29	17.5		
다 소 도 움	11	73.3	138	59.0	636	54.5	221	53.3	81	48.8	2	66.7
별 로 도 움 안 됨	1	6.7	34	14.5	242	20.7	82	19.8	48	28.9	1	33.3
오 히 려 해 롭 다			7	3.0	24	2.1	15	3.6	7	4.2		
무 응 답					4	0.3	2	0.5	1	0.6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6-1-6 >

북방정책과 평화와 통일

(직업별)

비율 내용	전 문 자 유 직	사 무 관 리 직	학 생	농 어 업	판 매 서 비 스	주 부	중 공 원 공 부 원	가 능 지 노 동 자	제 조 업	기 타 (무 직 포 함)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크 게 기 여	39 (27.7)	37 (17.3)	41 (17.2)	39 (26.5)	59 (20.3)	94 (20.7)	35 (33.3)	52 (22.7)	11 (28.9)	22 (26.2)	14 (23.7)
다 소 도 움	78 (35.3)	133 (62.1)	124 (52.1)	86 (38.5)	160 (55.0)	241 (53.1)	47 (44.8)	118 (51.5)	21 (55.3)	48 (57.1)	33 (55.9)
별 로 도 움 안 됨	24 (17.0)	36 (16.8)	60 (25.2)	17 (11.6)	66 (22.7)	106 (23.3)	20 (19.0)	52 (22.7)	5 (13.2)	12 (14.3)	10 (16.9)
오 히 려 해 롭 다		6 (2.8)	13 (5.5)	5 (3.4)	4 (1.4)	12 (2.6)	3 (2.9)	5 (2.2)	1 (2.6)	2 (2.4)	2 (3.4)
무 응 답		2 (0.9)			2 (0.7)	1 (0.2)		2 (0.9)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6-1-7>

북방정책과 평화와 통일

(지역별)

내 용	비 율		서 율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크 게 기 여	128	25.8	66	16.2	115	22.2	133	23.1	1	33.3		
다 소 도 움	276	55.5	222	54.5	278	53.8	311	54.0	2	66.7		
별 로 도 움 안 됨	85	17.1	107	26.3	106	20.5	110	19.1				
오 히 려 해 롭 다	6	1.2	12	2.9	14	2.7	21	3.6				
무 응 답	2	0.4			4	0.8	1	0.2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 ① 남자는 여자보다 약간 더 북방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자 74.4%에 대해 남자는 78%에 이른다.
- ② 연령별 의견차는 거의 없고 국졸(저학력)자는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 ③ 하층은 북방정책의 영향을 다른 계층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④ 교원과 공무원이 북방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생각하는 편(평균 22.15%에 대해 33.3%)이다.
- ⑤ 지역에 따르는 의견차는 거의 없다.

2. 「平祝」參加 不許措置

평양에서 7월에 열린 세계청년학생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참가하였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다. 그 대회에 「우리 청년학생들의 참가를 불허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2-1>

「평축」 불허 조치

(전체)

내 용	비 율	전 체	
		명	%
잘 한 일		467	23.35
부득이한 일		680	34.00
허가했어야		566	28.30
잘 못한 일		275	13.75
무응답		12	0.60
계		2,000	100

<표 6-2-1>에 나타난 반응의 특징을 추려본다.

① 참가불허 조치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아주 잘한일 23.35%와 부득이한 조치 34%)은 57.35%로 다수에 이른다.

② 그러나 그 조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악용우려가 있어도 허가했어야 한다 28.3%와 잘 못한 일 13.75%)은 42.05%에 이르러 거의 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은 불허조치로 인하여 생

긴 밀입북과 데모등 때문에 나타난 반응으로 생각된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6-2-2> 「평축」 불허 조치

(성별)

비율 내 용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잘 한 일	272	23.1	195	23.8		
부 득 이 한 일	355	30.1	322	39.4	3	100
허 가 했 어 야	352	29.9	214	26.2		
잘 못 한 일	194	16.5	81	9.9		
무 응 답	6	0.5	6	0.7		
계	1,179	100	818	100	3	100

<표 6-2-3> 「평축」 불허 조치

(연령별)

비율 내 용	20 대		30 대		40 대		50 대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잘 한 일	83	12.3	120	20.9	138	32.2	125	39.2	1	50.0
부 득 이 한 일	201	29.8	204	35.5	157	36.6	117	36.7	1	50.0
허 가 했 어 야	245	36.3	181	31.5	93	21.7	47	14.7		
잘 못 한 일	142	21.0	68	11.8	36	8.4	29	9.1		
무 응 답	4	0.6	2	0.3	5	1.2	1	0.3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6-2-4 >

「평 축」 불 허 조 치

(학력별)

내용 \ 비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잘 한 일	44	36.7	116	34.1	232	24.6	74	12.5	1	50.0
부득이한 일	41	34.2	107	31.5	364	38.5	167	28.2	1	50.0
허가했어야	16	13.3	75	22.1	247	26.1	228	38.4		
잘 못한 일	18	15.0	34	10.0	100	10.6	123	20.7		
무응답	1	0.8	8	2.4	2	0.2	1	0.2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6-2-5 >

「평 축」 불 허 조 치

(생활수준별)

내용 \ 비율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잘 한 일	2	13.3	63	26.9	275	23.6	90	21.7	37	22.3		
부득이한 일	8	53.3	82	35.0	405	34.7	146	35.2	36	21.7	3	100
허가했어야	4	26.7	64	27.4	332	28.4	108	26.0	58	34.9		
잘 못한 일	1	6.7	23	9.8	151	12.9	66	15.9	34	20.5		
무응답			2	0.9	4	0.3	5	1.2	1	0.6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6-2-6>

「평축」 불허 조치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중 고 원 부 원	가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잘한 일	29 (20.6)	43 (20.1)	14 (5.9)	52 (35.4)	66 (22.7)	134 (29.5)	16 (15.2)	59 (25.8)	10 (26.3)	28 (33.3)	16 (27.1)
부득이한 일	47 (33.3)	74 (34.6)	41 (17.2)	45 (30.6)	116 (39.9)	183 (40.3)	37 (35.2)	84 (36.7)	15 (39.5)	17 (20.2)	21 (35.6)
허가했어야	50 (35.5)	70 (32.7)	106 (44.5)	31 (21.1)	73 (25.1)	95 (20.9)	39 (37.1)	58 (25.3)	7 (18.4)	22 (26.2)	15 (25.4)
잘못한 일	15 (10.6)	26 (12.1)	75 (31.5)	16 (10.9)	35 (12.0)	40 (8.8)	12 (11.4)	27 (11.8)	5 (13.2)	17 (20.2)	7 (11.9)
무응답			1 (0.5)	2 (0.8)	3 (2.0)	1 (0.3)	2 (0.4)	1 (1.0)	1 (0.4)	1 (2.6)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6-2-7>

「평축」 불허 조치

(지역별)

비율 내용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잘한 일	95	19.1	90	22.1	124	24.0	156	27.1	2	66.7
부득이한 일	185	37.2	151	37.1	167	32.3	176	30.6	1	33.3
허가했어야	152	30.6	108	26.5	143	27.7	163	28.3		
잘못한 일	61	12.3	58	14.3	79	15.3	77	13.4		
무응답	4	0.8			4	0.8	4	0.7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남자는 여자보다 평양대회참가 불허조치에 대해 부정적(여자 36.1% 대 남자 46.4%)이다. 여자의 안정 희구성을 나타낸다.

② 젊을 수록 평축참가 허용을 생각하는 비율이 많아 50대의 23.8%와 40대의 30.1%에 대하여 20대는 57.3%, 30대는 43.3%에 이른다.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순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③ 고학력일 수록 정부조치에 반대입장에 있어 국졸자의 28.3%에 대해 고졸자 36.7%, 대재이상은 59.1%나 된다. 지식인이 평축참가 불허를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④ 하층민이 정부조치에 보다 반대적이어서 평균 42.5%에 대해 55.4%에 이른다. 하층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나 남북관계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유추할 수 있다.

⑤ 학생은 정부조치에 대해 타직종보다 훨씬 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평균 42.05%에 대해 학생은 76%나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의 의식이 매우 다름을 나타낸 것이다.

⑥ 지역에 따르는 의견차는 별로 없는 편이다.

3. 南北當局의 統一課題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남북 쌍방이 모두 진행해야 할 것이지만 「남북당국이 어느 조치부터 취해야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표 6-3-1 >

남북당국의 통일 과제

(전체)

내 용	비 율	
	전 명	체 %
상 호 인 정 불 간 섭	295	14.75
교 류 와 협 력	1,172	58.60
군 축 과 훈 련 감 소	148	7.40
유 엔 가 입 , 교 차 승 인	333	16.65
기 타	36	1.80
무 응 답	16	0.80
계	2,000	100

<표6-3-1>에 나타난 통일우선과제에 대한 의견중 특징을 추려 본다.

① 교류와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인 58.6%에 이른다. 이것은 한국정부 당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방안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② 군대감축과 훈련감소와 같이 북한측의 주장과 비슷한 것에 대한 우선적인 선호는 별로 없어 7.4%밖에 안된다. 이것은 평화(안전)에 대한 희망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③ 북쪽에서 반대하는 유엔동시가입과 남북교차 승인에 대하여 우선시하는 사람(16.65%)과 상호인정과 불간섭을 우선시 하는 사람(14.75%)은 비슷한 비율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6-3-2 >

남북당국의 통일과제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상 호 인 정 불 간 섭	178	15.1	116	14.2	1	33.3		
교 류 와 협 력	686	58.2	484	59.2	2	67.7		
군 축 과 훈 련 감 소	86	7.3	62	7.6				
유엔 가입, 교차승인	193	16.4	140	17.1				
기 타	28	2.4	8	1.0				
무 응 답	8	0.7	8	1.0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6-3-3 >

남북당국의 통일과제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상 호 인 정 불 간 섭	88	13.0	77	13.4	69	16.1	61	19.1				
교 류 와 협 력	409	60.6	352	61.2	242	56.4	168	52.7	1	50.0		
군 축 과 훈 련 감 소	59	8.7	32	5.6	28	6.5	29	9.1				
유엔 가입, 교차승인	93	13.8	104	18.1	83	19.3	52	16.3	1	50.0		
기 타	19	2.8	10	1.7	5	1.2	2	0.6				
무 응 답	7	1.0			2	0.5	7	2.2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6-3-4 >

남북당국의 통일과제

(학력)

내 용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재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상 호 인 정 불 간 섭	28	23.3	53	15.6	131	13.9	82	13.8	1	50.0		
교 류 와 협 력	55	45.8	184	54.1	553	58.5	379	63.9	1	50.0		
군 축 과 훈 련 감 소	17	14.2	33	9.7	56	5.9	42	7.1				
유엔가입, 교차승인	14	11.7	60	17.6	191	20.2	68	11.5				
기 타	4	3.3	2	0.6	12	1.3	18	3.0				
무 응 답	2	1.7	8	2.4	2	0.2	4	0.7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6-3-5 >

남북당국의 통일과제

(생활수준별)

내 용	비 율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상 호 인 정 불 간 섭	4	26.7	24	10.3	181	15.5	57	13.7	29	17.5				
교 류 와 협 력	6	40.0	156	66.7	609	59.9	229	55.2	79	47.6	3	100		
군 축 과 훈 련 감 소	1	6.7	24	10.3	69	5.9	42	10.1	12	7.2				
유엔가입, 교차승인	4	26.7	28	12.0	192	16.5	74	17.8	35	21.1				
기 타			2	0.9	21	1.8	7	1.7	6	3.6				
무 응 답					5	0.4	6	1.4	5	3.0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6-3-6 >

남북당국의 통일과제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어업	판매 서비스	주부	초·중 고·대학 공무원	가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상호인정불간섭	20 (14.2)	29 (13.6)	26 (10.9)	30 (20.4)	39 (13.4)	69 (15.2)	14 (13.3)	44 (19.2)	4 (10.5)	13 (15.5)	7 (11.9)
교류와 협력	90 (63.8)	140 (65.4)	143 (60.1)	77 (52.4)	178 (61.2)	259 (57.0)	65 (61.9)	123 (53.7)	25 (65.8)	44 (52.4)	28 (47.5)
군축과훈련감소	6 (4.3)	12 (5.6)	30 (12.6)	12 (8.2)	15 (5.2)	38 (8.4)	6 (5.7)	13 (5.7)	4 (10.5)	3 (3.6)	9 (15.3)
유엔가입,교차승인	21 (14.9)	28 (13.1)	25 (10.5)	22 (15.0)	56 (19.2)	83 (18.3)	18 (17.1)	44 (19.2)	4 (10.5)	18 (21.4)	14 (23.7)
기 타	4 (2.8)	2 (0.9)	11 (4.6)	4 (2.7)	2 (0.7)	2 (0.4)	2 (1.9)	1 (0.4)	1 (2.6)	6 (7.1)	1 (1.7)
무 응 답		3 (1.4)	3 (1.3)	2 (1.4)	1 (0.3)	3 (0.7)		4 (1.7)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6-3-7 >

남북당국의 통일과제

(지역별)

비율 내용	서 울		직 할 시		기 타 시		읍 · 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상호인정불간섭	73	14.7	50	12.3	82	15.9	90	15.6		
교류와 협력	309	62.2	257	63.1	292	56.5	311	54.0	3	100
군축과훈련감소	22	4.4	21	5.2	46	8.9	59	10.2		
유엔가입,교차승인	79	15.9	70	17.2	86	16.6	98	17.0		
기 타	9	1.8	8	2.0	7	1.4	12	2.1		
무 응 답	5	1.0	1	0.2	4	0.8	6	1.0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남북한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남녀간의 의견차는 거의 없다.

② 노장년층은 상호인정 불간섭을 젊은 층보다 약간 더 중요시하고 있고 젊은 층은 교류협력을 노장층보다 약간 더 중시하고 있다.

③ 고학력층일 수록 교류협력을 더 중요시(국졸의 45.8% 대 대재이상 63.9%)하고 있다.

④ 생활수준별 의견차는 많지 않으나 상류층을 제외하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류협력을 중요한 조치(과제)로 보는 율이 높아 하층의 47.6%에 비해 중상층은 66.7%에 이른다.

⑤ 학생은 군축을 타직종에 비해 약간 더 중시하고 있으나 직종에 따른 의견차는 별로 없는 편이고 대도시일 수록 교류협력을 중시하는 편이다.

4. 國內的 統一障礙 要因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통일장애요소중 최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냐는 물음에 대해 다음 <표6-4-1>과 같은 반응을 얻었다.

< 표 6-4-1 >

통 일 장 애

(전체)

내 용	비 율	
	전 명	체 %
환 상 적 통 일 론	694	34.70
좌 경 권 친 북 활 동	676	33.80
극 단 적 반 공 론	541	27.05
기 타	49	2.45
무 응 답	40	2.00
계	2,000	100

< 표 6-4-1 >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환상적 통일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34.7%에 이른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통일론과 조급한 통일추진론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것이다.

② 환상적 통일론(34.7%)과 좌경세력의 친북활동이 극복되어야 한다.(33.8%)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그 두가지를 합하면 68.5%가 된다. 이것은 최근의 무조건적인 통일론과 좌경론적 친북활동등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극단적 반공주의가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은 27.05%정도이다. 친북 및 친공과 통일지상론에 대한 거부적 반응에 비하면 훨씬 적은 반응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6-4-2 >

통 일 장 애

(성별)

내 용	비 율		남		여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환 상 적 통 일 론	397	33.7	295	36.1	2	66.7		
좌 경 권 친 북 활 동	372	31.6	304	37.2				
극 단 적 반 공 론	348	29.5	192	23.5	1	33.3		
기 타	37	3.1	12	1.5				
무 응 답	25	2.1	15	1.8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6-4-3 >

통 일 장 애

(연령별)

내 용	비 율		20 대		30 대		40 대		50 대		무 응 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환 상 적 통 일 론	213	31.6	227	39.5	144	33.6	110	34.5				
좌 경 권 친 북 활 동	169	25.0	181	31.5	184	42.9	141	44.2	1	500		
극 단 적 반 공 론	260	38.5	150	26.1	79	18.4	51	16.0	1	500		
기 타	16	2.4	10	1.7	14	3.3	9	2.8				
무 응 답	17	2.5	7	1.2	3	1.9	8	2.5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 표 6-4-4 >

통 일 장 애

(학력별)

내 용	비 율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환 상 적 통 일 론	43	35.8	107	31.5	358	37.9	185	31.2	1	50.0		
좌 경 권 친 북 활 동	42	35.0	144	45.3	369	39.0	121	20.4				
극 단 적 반 공 론	26	21.7	70	20.6	180	19.0	264	44.5	1	50.0		
기 타	7	5.8	6	1.8	25	2.6	11	1.9				
무 응 답	2	1.7	13	3.8	13	1.4	12	2.0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 표 6-4-5 >

통 일 장 애

(생활수준별)

내 용	비 율		상		중 상		중		중 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환 상 적 통 일 론	8	53.3	79	33.8	420	36.0	145	34.9	41	24.7	1	33.3		
좌 경 권 친 북 활 동	3	20.0	77	32.9	409	35.0	139	33.5	48	28.9				
극 단 적 반 공 론	4	26.7	72	30.8	291	24.9	113	27.2	60	36.1	1	33.3		
기 타			5	2.1	26	2.2	9	2.2	9	5.4				
무 응 답			1	0.4	21	1.0	9	2.2	8	4.8	1	33.3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 표 6-4-6 >

통 일 장 애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 생	농·어· 업	판 매 서비스	주부	중 고 등 생	기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직포함)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환상적통일론	60 (42.6)	83 (38.8)	56 (23.5)	49 (33.3)	103 (35.4)	163 (35.9)	36 (34.3)	77 (33.6)	12 (31.6)	33 (39.3)	22 (37.3)
좌경권친북활동	39 (27.7)	64 (29.9)	38 (16.0)	57 (38.8)	108 (36.4)	196 (43.2)	31 (29.5)	91 (39.7)	10 (26.3)	19 (22.6)	25 (42.4)
극단적반공론	37 (26.2)	56 (26.2)	130 (54.6)	27 (18.4)	71 (24.4)	84 (18.5)	33 (31.4)	55 (24.0)	15 (39.5)	21 (25.0)	12 (20.3)
기 타	3 (2.1)	6 (2.8)	7 (2.9)	8 (5.4)	7 (2.4)	7 (1.5)	1 (1.0)	4 (1.7)		6 (7.1)	
무 응 답	2 (1.4)	5 (2.3)	7 (2.9)	6 (4.1)	4 (1.4)	4 (0.9)	4 (3.8)	2 (0.9)	1 (2.6)	5 (6.0)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 표 6-4-7 >

통 일 장 애

(지역별)

비율 내용	서울시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환상적통일론	197	39.6	132	32.4	182	35.2	183	31.8		
좌경권친북활동	142	28.6	162	39.8	169	32.7	201	34.9	2	66.7
극단적반공론	129	26.0	104	25.6	141	27.3	166	28.8	1	33.3
기 타	15	3.0	4	1.0	12	2.3	18	3.1		
무 응 답	14	2.8	5	1.2	13	2.5	8	1.4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① 여성은 남성보다 통일장애요소로 환상적 통일론과 좌경친북활동을 많이 들고 있다. 여성의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성을 나타낸 것이다.

② 노령층일 수록 좌경친북을 장애요소로 보는 편(20대 25% 대 50대 44.2%)이고 젊은 층은 극단반공으로 보는 율이 적지 않아 50대의 16%에 대해 20대는 38.5%나 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반공정신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③ 대재이상의 지식인이 극단반공을 통일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바(평균 27.05% 대 대재이상은 44.5%) 승공이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④ 생활수준별 의견차는 많지 않으나 하층민은 극단적인 반공을 통일장애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⑤ 학생은 극단적인 반공을 통일장애로 가장 많이 제시하여 평균 27.05%에 대해 학생은 54.6%나 된다. 학생의 반공의식이 희박함을 나타낸 것이다.

⑥ 지역별 의견차는 별로 없는 편이다.

5. 北韓內 統一障礙 要因

앞에서는 남한내의 통일장애 요인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북한측에 내재하는 통일장애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 표 6-5-1 >

북한측 통일장애

(전체)

내 용	비 율	
	전 명	체 %
대 남 적 화 노 선	595	29.75
폐 쇄 사 회	496	24.80
세 습 체 제	651	32.55
경 제 사 회 후 진 성	71	3.55
군 사 력 증 강	153	7.65
무 응 답	34	1.70
계	2,000	100

<표6-5-1>에 나타난 반응중 특징적인 것을 추려 본다.

① 어떤 요인에 대한 두드러진 의견이 집중되 있지 않고 몇가지가 거의 비슷하다.

② 세습체제 (32.55 %) , 대남적화통일노선 (29.75 %) , 폐쇄사회 (24.8 %) 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남적화노선은 남한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은 대내적인 것이다.

③ 김일성부자의 세습체제가 통일의 장애요소로 보는 사람이 제일많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김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북한의 개방 (민주)화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 또는 남한주도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내포된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김일성의 존재가 지금까지는 통일 또는 남북관계 개선등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계층별 의견차는 다음 표들과 같다.

< 표 6-5-2 >

북한측 통일장애

(성별)

비율 내 용	남		여		무 응답	
	명	%	명	%	명	%
대 남 적 화 노 선	336	28.5	257	31.4	2	66.7
폐 쇄 사 회	308	26.1	188	23.0		
세 습 체 제	371	31.5	280	34.2		
경 제 사 회 후 진 성	47	4.0	23	2.8	1	33.3
군 사 력 증 강	93	7.9	60	7.3		
무 응 답	24	2.0	10	1.2		
계	1,179	100	818	100	3	100

< 표 6-5-3 >

북한측 통일장애

(연령별)

비율 내 용	20대		30대		40대		50대		무 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대 남 적 화 노 선	169	25.0	170	29.6	132	30.8	124	38.9		
폐 쇄 사 회	190	28.1	138	24.0	111	25.9	57	17.9		
세 습 체 제	226	33.5	196	34.1	137	31.9	91	28.5	1	50.0
경 제 사 회 후 진 성	28	4.1	17	3.0	14	3.3	11	3.4	1	50.0
군 사 력 증 강	40	5.9	49	8.5	31	7.2	33	10.3		
무 응 답	22	3.3	5	0.9	4	0.9	3	0.9		
계	675	100	575	100	429	100	319	100	2	100

<표 6-5-4>

북한측 통일장애

(학력별)

비율 내용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대남적화노선	44	36.7	118	34.7	269	28.5	164	27.7		
폐쇄사회	25	20.8	59	17.4	231	24.4	181	30.5		
세습체제	41	34.2	123	36.2	301	31.9	185	31.2	1	50.0
경제사회후진성	3	2.5	4	1.2	41	4.3	22	3.7	1	50.0
군사력증강	6	5.0	30	8.8	94	9.9	23	3.9		
무응답	1	0.8	6	1.8	9	1.0	18	3.0		
계	120	100	340	100	945	100	593	100	2	100

<표 6-5-5>

북한측 통일장애

(생활수준별)

비율 내용	상		중상		중		중하		하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대남적화노선	6	40.0	66	28.2	365	31.3	113	27.2	44	26.5	1	33.3
폐쇄사회	1	6.7	67	28.6	285	24.4	99	23.9	43	25.9	1	33.3
세습체제	5	33.3	72	30.8	373	32.0	150	36.1	51	30.7		
경제사회후진성	1	6.7	11	4.7	38	3.3	13	3.1	7	4.2	1	33.3
군사력증강	2	13.3	16	6.8	88	7.5	34	8.2	13	7.8		
무응답			2	0.9	18	1.5	6	1.4	8	4.8		
계	15	100	234	100	1,167	100	415	100	166	100	3	100

<표 6-5-6>

북한측 통일장애

(직업별)

비율 내용	전문 자유직	사무 관리직	학생	농업	판매 서비스	주부	중 고 공 부 원	가능직 노동자	제조업	기타(무 작업)	무응답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대남적화노선	46 (32.6)	62 (29.0)	55 (23.1)	48 (32.7)	77 (26.5)	141 (31.1)	41 (39.0)	61 (26.6)	15 (39.5)	28 (33.3)	21 (35.6)
폐쇄사회	44 (31.2)	55 (25.7)	68 (28.6)	30 (20.4)	77 (26.5)	90 (19.8)	29 (27.6)	58 (25.3)	7 (18.4)	23 (27.4)	15 (25.4)
세습체제	39 (27.7)	68 (31.8)	76 (31.9)	43 (28.6)	105 (36.1)	165 (36.3)	28 (26.7)	74 (32.3)	10 (26.3)	25 (29.8)	19 (32.2)
경제사회후진성	5 (3.5)	12 (5.6)	14 (5.9)	4 (2.7)	8 (2.7)	15 (3.3)	2 (1.9)	9 (3.9)	1 (2.6)	1 (1.2)	
군사력증강	6 (4.3)	15 (7.0)	11 (4.6)	20 (13.6)	22 (7.6)	40 (8.8)	4 (3.8)	25 (10.9)	3 (7.9)	5 (6.0)	2 (3.4)
무응답	1 (0.7)	2 (0.9)	14 (5.9)	3 (2.0)	2 (0.7)	3 (0.7)	1 (1.0)	2 (0.9)	2 (5.3)	2 (2.4)	2 (3.4)
계	141 (100)	214 (100)	238 (100)	147 (100)	291 (100)	454 (100)	105 (100)	229 (100)	38 (100)	84 (100)	59 (100)

<표 6-5-7>

북한측 통일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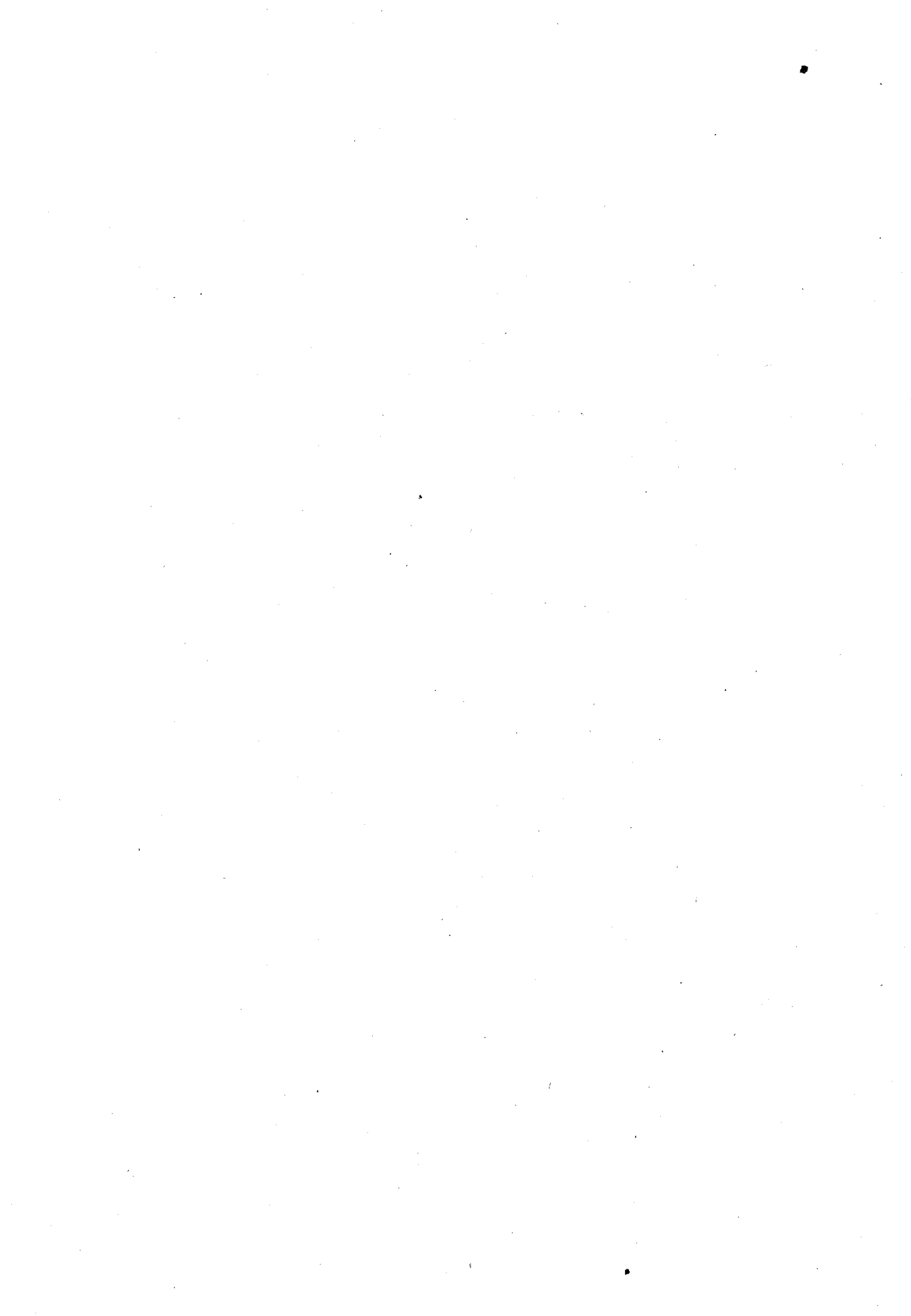
(지역별)

비율 내용	서울		직할시		기타시		읍·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대남적화노선	145	29.2	132	32.4	151	29.2	167	29.0		
폐쇄사회	129	26.0	90	22.1	136	26.3	140	24.3	1	33.3
세습체제	166	33.4	141	34.6	161	31.1	182	31.6	1	33.3
경제사회후진성	18	3.6	10	2.5	14	2.7	28	4.9	1	33.3
군사력증강	30	6.0	23	5.7	45	8.7	55	9.5		
무응답	9	1.8	11	2.7	10	1.9	4	0.7		
계	497	100	407	100	517	100	576	100	3	100

앞의 표들에 나타난 특징을 추려 본다.

- ① 북한측이 지닌 통일장애요인에 대한 남녀별 의견차는 거의 없다.
- ② 노년층일 수록 대남적화노선이 통일장애요소로 보는 율이 많아 20대의 25%에 비해 50대는 38.9%에 이른다. 50대가 전쟁을 경험하였음에 비추어 그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③ 저학력층일 수록 대남적화전략을 들고 있는 편(대재이상 27.7%, 국졸 36.7%)이다.
- ④ 생활수준에 따르는 의견차는 거의 없고 직종에 있어서는 교원, 공무원, 제조업자등이 대남적화전략을 통일장애로 보는 편이다.
- ⑤ 지역에 따르는 의견차는 거의 없다.

第3章 問題點 및 要約



제 2 장에서 각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거니와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중에서 두드러진 것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1. 學生 및 20 代의 反體制的 意識

학생과 20 대는 통일 및 안보와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정부나 우익적인 성향의 다른 직종의 연대감과 크게 다르다. 즉, 북한에 대한 호의성, 미군철수문제,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옹호의식의 미약등, 전반적으로 반체제의식이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높다. 20 대와 30 대가 비슷하고 40 대와 50 대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학생은 두드러진다.

2. 下層의 體制擁護意識 微弱

중간(중하, 중상포함)층과 상층에 비하여 하층은 대공경계심(북한관), 안보관(반공관), 통일관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수호의식이 약하며 어떤 체제도 좋다는 생각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3. 知識層의 否定的 意識

지식인(대재이상)은 많은 항목에서 우리 체제 및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학력일수록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4. 女性의 安定 및 肯定的 性向

여성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에 비하여 체제유지 및 안정지향의 의견을 나타내고 북한경계심 반공의식, 안보관등에서 남성보다 긍정적, 체제유지적이다.

5. 職業 및 地域的 意識差의 不在

학생만이 다른 직종과 다른 의견을 가질 뿐이고 기타의 직종들은 의견차를 별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 따르는 의견차가 거의 없다. 지역별 의견차가 없는 것은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생활권의 축소(교통의 발달)등에 기인한 것이다.

6. 統一諦念論 急增

통일에 대한 논의는 작년과 금년에 이르러 종래보다 훨씬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86년의 23.13%에서 금년에는 38.65%로 급증하고 있다. 논의와 가능성에 상관성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7. 自由民主體制 守護意志 弱化

몇년동안에 사상적 혼돈상태가 계속되었거니와 통일국가체제로서 자유민주체제를 내세우는 사람이 86년의 85.42%에서 금년에는 80.1%로 줄었고 학생은 63.4%에 불과하다. (86년학생 80.45%) 체제유지 확신도의 약화를 뜻한다.

8. 密入北行爲에 相當數 同調

밀입북행위가 통일과 대화에 유익했다고 보는 사람이 상당수(18.3%) 있고 학생은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사람(24.4%)보다 유익하다는 학생이 37.8%나 된다. 밀입북자에게 관용(처벌반대 포함)하라는 의견도 47.35%(처벌주장 52%)나 되는데 하층은 61.5%, 학생은 72.3%나 된다.

9. 統一論議 制約反對 意見 相當數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체제부정논의까지도 제기되고 있거니와 제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약간 많기는 하나 자유개방에 48.55%가 찬성하고 학생은 제약에 25.5%만 찬성하고 있다.

10. 一部學生의 北韓에 對한 好感

북한의 정치체제를 좋은 체제로 보는 학생의 수(16.4%)와 북한 사회를 살만한 곳으로 보는 학생 수(17.6%)가 비슷한 바 학생중 17%내외가 북한사회와 체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당장 미군철수 주장은 14.7%) .

11. 解弛해진 安보警覺心

전쟁위험이 없다는 의견이 86년의 23.5%에서 금년에는 37.15%로 급증하였는데 대내정치 및 사회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안보의식(경각심)이 크게 줄었음을 나타낸다. 학생의 경우는 52.1%가 안보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12. 美軍撤收意見 增大

일부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거니와 86년에는 상당기간(조건부) 주둔을 생각하는 사람이 77.53%였는데 금년에는 73.9%로 약간 줄었다. 지식인은 57.6%, 학생은 44.5%만 주둔을 바랄 뿐이다. 학생중 당장 철수하라는 의견도 14.7%나 된다.

13. 相當數의 「平祝」參加不許 反對

평양청년학생축전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거니와 그에 대해서 잘 못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42.5%나 된다. 하층민(56.6%)과 학생(76%)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진다.

14. 知識層의 反共拒否論

통일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극단적 반공론을 들고 있는 사람이 27.05% 이거니와 대학재학이상의 학력(44.5%)과 학생(54.6%)의 반공거부적인 의견이 많다.

統一問題에 관한 國民意見調查

1989年 12月 14日 發行

1989年 12月 29日 印刷

發行處：國土統一院 第二政策官室

印刷所：輝文印刷株式會社

國統政 89-12-126

〈非賣品〉

서기 1989 년 12월 29 일 발행 100 부 발간

발간업체명	취문인쇄주식회사 ☎ 734-2523-4 735-2523-4
대표자	구 자 만
인가근거	내자 2066 - 8759 (68.6.12)
입회자	통 일 정 책 실
	이 영 석

